



통권 14호

# 예수마을

뉴욕예일장로교회



# 예수마을 통권 14호 목차

예수마을 통권 14호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권두언  
예수마을 14호를 펴내며  
예일뉴스

말씀  
기도해보지 않으실래요?  
모세의 리더십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며 성경 1000독 쌓기

성경탐구 40일을 끝내면서  
성경탐구 40일을 마치며

교회행사  
가족찬양제 수상소감  
가족찬양제를 뒤돌아 보며  
전교우 수련회를 통한 은혜  
내 생애 첫 수련회  
성경퀴즈대회 관전기

섬김  
사랑의 덧버선을 만나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  
바디워십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훈련/간증  
검손을 알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보게한 101제자훈련  
신앙의 위치를 변하게한 101 훈련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  
내 삶의 증거가 된 101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바꾸어준 삶  
마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201 훈련

깊이 있는 사람  
DT Reflection

김종훈 담임목사  
오현섭 장로  
편집부

윤승진 부목사  
조유경 사모  
송광수 장로  
노영실 권사  
김미라 권사

김창성 장로  
한 진 집사  
이윤미 집사  
박선희 성도  
강민석 형제

편집부  
방영희 권사  
김연신 집사  
최 훈 집사

조성식 집사  
김재운 집사  
김경애 집사  
성지하 집사  
박지숙 집사  
이현진 자매  
박제진 집사

한진영 집사  
김보연 자매  
Gina Kwon

사진으로 보는 예일의 한해

선교  
출애굽 여정과 거룩한 땅  
성지순례를 통한 신앙적 각오  
아버지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Workcamp 2011

간감  
감기의 증상과 관리

예수마을 한마당  
성경은 생선 먹듯 읽지마라  
지상의 천국 천상의 부부  
시어머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나의 슬람미가 되시는  
다시 불러주신 은혜  
내 생명의 뿌리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며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마치고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마치고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마치고

편집후기

편집부

한기하 장로  
정건수 집사  
구속자 권사  
김미라 권사  
Joy Park

오현섭 장로

김창성 장로  
김주상 권사  
차은경 권사  
신동인 집사  
마승범 집사  
박민애 집사  
이종서 집사  
심도현 집사  
곽정희 집사  
장준원 학생  
Dan Hahn

임미라 집사

## 권두언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대회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가 주관하는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대회는 2008년에 시작하여 급년에 제 5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루에 약 만 명 정도가 보이는 대형 전도대회를 작은 규모의 뉴욕노회가 5년 동안 지속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교사인 니카라과의 이동홍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와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의 선교의 끝이라는 인프라(infra)를 구축하게 하였고, 그 위에 5년 동안의 전도대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이동홍 선교사님은 장시에 지진과 내전으로 선교지로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었던 니카라과에 뉴욕노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마사야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전략으로 선교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가 16년 만에 13개 교회 개척 봉헌과 각 교회에 원주민 복회자를 훈련시켜 가입복회자로 세우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뉴욕노회 교회들의 단기선교와 예배당 건축 후원이 함께 뒷받침되었고, 그 외에도 미주의 많은 교회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동홍 선교사님은 마사야 지역의 두 개의 복회자 협의회 복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마사야 전도대회를 위한 그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마사야 지역의 250개 개신교회 중 225개의 교회가 참여하는 선교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뉴욕노회는 약 30개의 교회가 소속되고, 년 예산이 7만불 정도되는 크지 않는 노회입니다. 한번 전도대회

를 할 때 약 4만5천불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노회 산하 모든 교회가 마사야 전도대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뉘를 감당해 주었고, 작은 교회들도 선교대회와 또한 이동홍 선교사님이 개척해 놓은 현지 교회의 작은 부분이라도 필요에 참여하는 증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하부구조(infra)위에 4회와 5회 대회에는 대회 주강사로 수고하신 허원구 목사님이 섭기시는 한국의 부산 산성교회가 참여하여 한국과 미국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중남미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새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연인원 10만명 참석에 약 3,000명의 결신자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분열되었던 마사야 지역 복회자협의회가 이 전도대회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사야 전도대회를 위해 마사야 지역에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톨릭이 국교인 니카라과에서 교황이 올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각 교회들에는 전도요원들이 훈련되었습니다. 전도대회 결신자들이 그들의 주소와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등록함으로 교회마다 부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이 훈련되었습니다. 2002년에 5%였던 니카라과 개신교도 수가 지금은 현지 선교사 통계에 의하면 25%, 그리고 니카라과 전직 통계청 장관의 말을 빌리면 약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흐름을 위해 작은 뉴욕노회 교회들의 힘을 모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뉴욕노회 선교부장으로 이 대회를 직접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물질, 인적 등의 숨은 봉사가 사실상 이 전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는 것에 또한 하나님께 부한 감사를 드립니다.

## 예수마을 14호를 펴내며



홍보출판위원장  
오현섭장로

살롱!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에 예수마을 14호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예수마을 한권의 책 속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생활과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글로 가득합니다.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글들은 은혜가 되며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마을은 예수님을 제일로 모시고 사는 뉴욕예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위로받고 치유받았는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은혜받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가는지, 육신의 병든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나 행사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예수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이장님은 김종훈 목사님 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실패하시거나 개인의 신앙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예수마을 14호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출판부원들에게 감사를 이 글로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예일소식

## 편집부

### 김종훈 담임목사 뉴욕교협 38회기 부회장 피선

뉴욕교협 38회기 조직이 발표됐다. 뉴욕교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회장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부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부회장 황규복 장로(롱아일랜드성결교회), 총무 이희선 목사(새언약교회), 서기 현영갑 목사(뉴욕샘물장로교회),



부서기 최요셉 목사(뉴욕참사랑교회), 회계 이의창 장로(뉴욕베데스다교회), 부회계 최운돈 목사(뉴욕베델교회)로 임원진이 구성됐다.

### 뉴욕예일장로교회 강세훈 전도사 목사안수

강세훈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해외한인장로회 제 45회 뉴욕노회(노회장 현영갑 목사)는 10월 9일(주일) 오후 5시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강세훈 전도사를 목사 안수했다.

강세훈 전도사는 1973년 8월 9일 경북영주 출생으로 장신대 교회음악과와 신학대학원(M.Div), 드루신학교(M.Div)를 졸업했다. 뉴욕한인중앙교회와 뉴저지참빛교회 전도사를 거쳐 현재 뉴욕예일장로교회 전임전도사를 역임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홍지연 사모와 강유진, 유은, 사랑이 있다.

한편 목사안수예식은 인도 노성보 목사(부노회장), 기도 김성은 목사(회록서기), 찬양 예일장로교회찬양대, 설교 현영갑 목사(노회장), 안수자 소개 김천수 목사(서기),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 성의 착의식, 임직패증정 노회장, 축가 이주환집사(참빛교회), 권면 김종훈 목사(전직노회장), 축사 문정선 목사(수정교회), 축가 교역자일동(예일교회), 답사 강세훈 목사, 인사및 광고 김천수 목사(서기), 축도 강세훈 목사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영갑 목사는 “목회자의 눈(딤후 4:1-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목사는 영안, 혜안, 심안, 자안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목사는 권면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고 문정선 목사는 목회자인 아버지의 DNA를 받아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줄 믿는다고 축하했다.

답사에 나선 강세훈 목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결같은 종,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목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 이용걸목사 초청 심령부흥회

“어려운시대, 만족의 삶을 사는 3가지 방법”

뉴욕예일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를 초청하여 6



월 20일(월)부터 3일간 심령부흥회를 열었다. 이 목사는 예일교회에서 3번째 성회를 인도하며 예일교회 성장을 지켜보았다. 이 목사는 21일(화) 오후에 열린 성회에서 “만족의 삶(빌 4:10-13)”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어려운 시대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 한분으로 행복했던 바울의 만족의 비결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은혜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하는 3가지 만족의 비결을 소개했다.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며, 둘째 적응하려는 자세를 가지며, 셋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1. 만족의 비결은 배우려는 자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려움을 통해 다듬으신다.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은 못깨닫지만 배우고 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 진다.

2. 만족의 비결은 적응이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잘되면 잘되는대로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다면 그 형편에 적응하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환경에 적응하라.

3. 만족의 비결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못하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때 역사가 일어난다.

### 뉴욕예일교회와 부산산성교회 단기선교팀 연합파송예배

부산산성교회 허원구 목사와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좌에서) ‘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로’의 주제로 2월 24일(금)과 27일(주일) 삼일간 열리는 니카라과 마사야선교대회에 참가할 부산산성교회 26명의 단기선교팀과 뉴욕예일장로교회 교인들이 연합으로 단기선교팀 파송예배를 드렸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가 지원하고 노회파송선교사 이동홍 선교사가 주관하는 마사야선교대회는 니카라과 공설운동장에서 5회째 열리는 것이며 대회의 설교는 부산산성교회 허원구 목사가 맡게 된다. 칠레선교사 출신으로



스페인시 설교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허 목사는 지난 해인 4회 대회에도 설교를 맡았으며 3회 대회에는 김종훈 목사가 설교하고 허 목사가 통역을 맡았다. 부산산성교회 단기선교팀은 22일(수)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연합파송예배에서



바이올린 연주, 찬양, 부채춤 등의 공연을 펼쳤으며 뉴욕예일교회 단기선교팀도 선교대회 기간 동안 실시할 공연을 선보였다.

허원구 목사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6-10)”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부산에서 뉴욕을 거쳐 니카라과의 긴 여정을 건너왔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무모한 선교가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열정이 마음 속에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선교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허 목사는 최근 한국선교의 문제점이 ‘경쟁’이며 ‘선교지에 깃발 먼저 꽂기’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예일교회와 연합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목사는 “1996년에 우리 교회가 칠레에 선교를 갔을 때 당시 칠레선교사이셨던 허 목사님이 설교 통역을 해 환상의 호흡이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언젠가 우리 이렇게 짝을 지어 중남미 순회 선교를 하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크게 기뻐했다. 3회 대회때 통역을 두고 대회설교를 맡았던 김 목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까 생각하던 차에 허원구 목사를 떠올렸고 직접 만나 차기대회의 스페니시설교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허 목사는 자신이 하고 있던 대회의 설교를 다른 목사에게 양보하는 일은 겸손과 연합의 정신이 없다면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김 목사를 칭찬했다.

한편 금년의 제 5회 마사야선교대회는 부산산성교회(26명), 뉴욕예일장로교회(17명), 샌디에고 열방교회(5명), 뉴욕효신장로교회(4명), 웨체스터장로교회(3명), 뉴욕샘물장로교회(1명)등이 연합으로 참가하며 마사야 현지의 220개 교회와 만오천명이 참가하여 천이백명이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회 대회까지는 총 2,300명이 결신해 각 교회에 등록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중에는 목회자 세미나, 교회학교 교사세미나, 한방사역, 개인 전도, 중보기도, 안경사역, 노방전도, 어린이사역, 목회자 신분증제작, 찬양경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유년부,중고등부의 할렘 홈레스사역...

뉴욕 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가 21일 낮 할렘가 홈리스들을 방문해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다.

16년째 할렘가 홈리스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를 통해 매년 할렘가를 방문, 푸짐한 음식을 전해주고 있는 예일교회는 김명희 선교사의 사역 원년부터 함께 동참해 할렘가 선교를 돕고 있다. 이날 예일교회에서는 김종훈 목사를 비롯해 봉사활동을 담당할 5선교회 교우들과 특별히 방학시즌을 맞아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한 유년부와 학생부들이 참여해 찬양과 기도를 이끌며 홈리스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예일교회 학생부와 유년부가 선보이는 은혜로운 찬양과 울동에 맨하탄 124가 Soul Saving Church에 모인 250여 명의 홈리스들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박수로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했으며 김중훈 목사는 홈리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기도했다.

예일교회의 할렘가 홈리스 사역에는 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과 성도들의 신나는 찬양으로 인해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 홈리스들도 매우 큰 위로를 얻고 있다. 이날도 평소보다 많은 홈리스들이 교회를 찾았다.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날 홈리스들에게

호응했다. 찬양팀의 ‘Amazing grace’ 등의 성가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는 홈리스들도 있었으며, 특히 유년부가 선보인 양증맞은 울동을 홈리스들은 매우 기뻐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김중훈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골리앗은 키가 9 피트나 되는 거인이고 군사 중에 군사였다”며 “이에 비해 다윗은 골리앗에 비교할 바 없는 체구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중훈 목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은 다윗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나의 능력,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중훈 목사의 메시지 이후 기도받기 원하는 홈리스들이 앞으로 나와 예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예일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나온 홈리스들의 몸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와 주스, 간식거리 등을 제공했다. 홈리스들은 음식을 제공받으며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예일교회 성도들은 함께 홈리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6년간 맨하탄 할렘가에서 매주 2차례 홈리스들의 점심을 제공해 온 김명희 선교사는 “그동안 홈리스 사역을 통해 비록 오랜 시간이지만 홈리스들 스스로가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어떤 이는 마약을 끊기도 하고 직장을 얻어 홈리스 생활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선교사는 할렘가 사역을 펼치게 된 데 대해 “이것 또한 영혼구원 사역이고 그 다음은 한흑간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며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미국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홈리스 사역을 통해 미국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 선교사는 “지금까지 홈리스 사역을 꾸준히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인교회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오늘 참석한 예일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역을 도왔다”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이 사역이 어려워졌다. 그런 중에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KPCA뉴욕노회 연합 합창제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노회장 안찬수 목사) 여선교회(회장 양은범 장로)가 주관한 제 24회 연합찬양제가 11월 7일(주일) 오후 5시 뉴욕에일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7개 교회, 4개 찬조출연팀이 출연한 24년의 전통의 뉴욕노회 연합찬양제는 각 교회가 개성을 살려 특색있는 찬양을 선보였으며 크고 작은 교회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제였다. 전통적인 찬양대의 클래식 스타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 하면 드럼, 베스기타 등의 악기를 동원한 CCM의 찬양등 다양한 장르와 구성으로 마련되었다.

5명이 나온 교회와 61명의 찬양대가 출연한 교회가 대조를 이뤘으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은 대동소이했다. 노회장 안찬수 목사는 “영감이 넘치는 찬양과 행복(시103:1-5)”의 말씀을 전하며 아이의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간증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찬양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찬양제 후에 참석한 뉴욕노회소속 온 교인들은 뉴욕에일장로교회가 마련한 저녁식사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이날 1부 예배는 찬양인도 뉴욕에일장로교회, 사회 소순천 집사, 기도 김석순 집사, 성경봉독 윤현식 집사, 말씀 노회장 안찬수 목사, 특송 뉴욕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 및 증경회장단, 헌금 윤희령

권사, 광고 양은범 장로, 축도 현영갑 목사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2부의 연합찬양제는 김은종 장로의 사회로 7개 교회가 출연했으며 마무리기도 김종훈 목사, 식사기도 노성보 목사가 각각 맡았다. 다음은 출연한 교회와 찬양곡이다.

△뉴욕한인연합교회(오영관 목사) ‘주만섬기네’ ‘오직 주만이’ △시민교회(안찬수 목사) ‘빛되신 주’, ‘참 즐거운 노래를’ △뉴욕에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갈보리’, ‘나팔소리 들어라’ △뉴욕참좋은교회(신상필 목사)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성령이 오셨네’ △뉴욕방주교회(김천수 목사) ‘그의 빛 안에 살면’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웨체스터장로교회(황병걸/노성보 목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수아 성을 쳤네’ △샘물장로교회(현영갑 목사)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우릴 사용하소서’ 등이다.

찬양제를 위해 뉴욕에일장로교회의 에이레네여성중창단(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영혼에 햇빛 비추리), 시온성교회의 최예원(부채춤 바디워십) 뉴욕에일장로교회의 듀나미스중창단(소리높여 찬양, 어찌 날 위함이온지)가 찬조출연했으며 뉴욕노회 목사와 사모가 합창했다. KPCA 동북노회(노회장 조기봉 목사)의 여선교회연합회 임원들이 축하했다.



## 기도해보지 않으실래요?



은승진 부목사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영양이 넘치고 건장한 사람이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는 연약한 우리들은 말씀따라 살아 가기가

힘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르아호)에 우리의 영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이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땅에서 잠시동안 육신에 갇혀 생활하셔야 했던 예수님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일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 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 하셨습니다(눅 3:21).

열두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도 산으로 가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6:12).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눅 22:39-44).

아무 죄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더욱 기도해 힘써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눅 22:39).

어떤 일에 습관이 붙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기도하시는 분은 5분도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인내를 갖고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서 기도하는 습관이 붙으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맛 볼수 있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큰 것입니다. 이 기쁨은 기도하는 자들이 갖는 비밀이며 힘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이 능력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일교회를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저희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데 우리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누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은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듯이 애쓰고 힘쓰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와 월삭기도회에 성도들이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선교회마다, 어떤 기관의 모임에서도 풍성한 기도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 벽을 넘어 전 누욕에, 전 세계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 모세의 리더십



조유경사모

출애굽기를 읽다보면 정말 신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서에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지요. 각종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출애굽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가장 잊을 수 없던 곳이 바로 시내산 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은 나무가 많고 푸른 산입니다. 한국에서 익숙히 보아 왔듯이 암반이 적당히 좀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산이었습니다. 정말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돌로 된 산으로 색깔도 별거스름한 붉은 산이었습니다. 우리 팀들은 이전에 다녀 온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들은 시내산의 정보를 모아 춥고 피곤한 밤에 떠나지 않고 낮에 산세를 보며 등정을 즐기면서 가려는 일정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막상 이집트에 가보니 예상치 않았던 사회적 상황이 생겼습니다. 베두인족들이 시위와 데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던 르비딴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격한 사람들이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르비딴을 통해 시내산으로 가려는 코스를 갑자기 바꾸어 일단 누에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의 시내산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정이 확 바뀌어 한 밤중에 일어나 일출을 보러가는 코스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한 밤중 자정에 일어나 약 2시간 못되어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고 버스에 내리니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돌 바람이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 내린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라 모자를 쓰고 목도리로 칭칭 감고 가이드를 따라 해발2285m, 시내산에 걸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칠혹 같은 밤이라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싶었지요. 아무런 전기나 불이 없어 가지고 간 작은 손전등을 의지하고 땅만 비추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늘엔 웬 별들이 그리 많은지.....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들이었지만 그 별들을 즐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차 잘못 디디면 발목을 다칠 것 같아 손전등으로 발 앞만 비추며 온 정신을 집중하여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700개 계단을 오를 때는 정말 아찔아찔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란 구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날씨는 매우 춥고 바람은 거세도 산에 오르느라 온 몸은 땀에 폭 젖어 있었지요. 약 3시간 정도 캄캄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제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이 입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밤중에 올라가는 코스를 만들은 거야? 그러지 않아도 여행 중에 피곤한데 잠도 못자고 일어나서 캄캄한 밤길을 위험하게 오르며 단지 일출하나 보겠다고 이 짓을 해야 하나? 일출은 한국에서부터 익히 보았는데 새삼스레 웬 일출? 학창시절에 갔던 수학여행에서 토함산 일출도 다 보고 왔는데 뭘 또 보겠다고 이렇게 힘든 산행을 왜 내가 오겠다고 했지?’ 등등 온갖 후회와 원망이 육체적 한계를 느끼면서 머릿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사명이 다르고 내 사명이 다른데 왜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이 곳을 와야 하지?’ 하며 불만과 불평이 온 몸과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츰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곳에서 죽지 싶어서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꼭 영감을 얻고 영역을 더해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들 드렸습니다. 참으로 사경을 헤매다시피 시내산을 올라 일출이 되어 햇빛이 비치니



밤새 올라 온 길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험한 길을 내가 걸어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험한 길을 모세는 두 번이나 혼자서 올랐다고 생각하니 모세의 체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율법을 화가 나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산에 올랐어야 했던 모세에게 그의 인내심과 온유함은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지요.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조망만 한 후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세월을 지도자로서 목적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끝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원하는 일정이 아닌 시내산 새벽일출 등정과 같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일정에서 우리 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야 함도 새삼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히브리어로 가시덤불, 혹은 쓰레기라는 뜻이 있고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인 호렘산도 건조한 곳, 척박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우리의 심성은 꼭 시내산과 호렘산과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돌로 된 산에 햇빛이 비추게 되니 그 위용이 장관이었습니다. 아무리 건조하고 척박하고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시내산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멋진 경관을 발할 수 있는 것임을 또 한 번 시내산을 하산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내산 등정의 아침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만 감사할 뿐이라는 감동이 밀려오는 날이었습니다.





## 창립 20 주년을 바라보며 성경 1000독 쌓기



교육위원장  
송광수 장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지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케 되기를 원하셔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15주년 때 성경필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바라보며 듣기, 연구, 암송, 묵상을 잘 하시는 성도들이 읽기로 성경 1000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많은 복과 사랑을 받은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유치부에서 1선교회에 이르기 까지 기쁨으로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20주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힘을 내십시오. E.M도 동참하실 것입니다. 영아부는 엄마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각 목장, 선교회, 기관별로 서로 격려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읽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성경읽기표를 사용하셔서 통독을 하신 후 이름을 쓰셔서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1000독 때 읽기표를 모아 하나님께 봉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듣고 읽는 가운데 말씀이 풍성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주위 환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이 예일교회와 모든 가정위에 함께 할 것 입니다.

할렐루야!

## 성경탐구 40일을 마치며



제2여성교회  
김미라 권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탐구 40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매 수요일 예배 때마다 김종훈 목사님의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는 설교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에덴동산의 선악과도 따먹게 하시고 출애굽 광야시대의 만나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말씀을 먹었는지 레위기 민수기는 제사법에 질려 건너뛰기 일쑤였는데 그 지루한 제사법까지도 그만 맛있게 먹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지명은 읽을 때에는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막연히 읽곤 했었지요. 성경탐구를 공부하면서 지리를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도를 그려가며 동행하고, 출애굽 여정,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땅 분배,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생활, 포로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하면서 변덕스럽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갈릴리 호수, 여리고 성 이제는 눈 감고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고 했는데 왜 내려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여리고는 땅이 바다보다 낮아서 상당히 내려가는 곳임을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과 혈문산의 이슬도 느껴졌어요. 지리와 기후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지 몰랐습니다. 사도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공부할 때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인을 희생하며 선교지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우리 예일교회의 선교팀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의 뼈대를 맞추고 성경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무 능력없는 세계 감히 간증문까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김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경탐구 40일을 마치며



제1선교회  
노영실 권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탐구 40일”의 끝맛 같은 말씀의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된 것이 “마리아의 노래”로 끝맺음을 가지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광야생활 70여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달으면서 또 다른 기대 속에 첫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대와 연대별의 시작으로 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것 같으며 그간에 알아왔던 성경의 맥이 또 다시 정리되는 것 그리고 알아간다는 기쁨이 내 마음에 밀려움을 느끼며 마무리를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구체적인 설명 가운데 지도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자취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과정 하나 하나 가운데 나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 굳혀감을 생각할 때 금번 40일 성경탐구의 매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개월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수요일을 기대하며 주어졌던 모든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여생 기쁨으로 천국을 기대하는 소망이 더욱 넘침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가운데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준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이 한해 이 말씀이 있었기에 더욱 멋진 한 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가족찬양제 수상소감



제1선교회  
김창성 장로

우리 가족이 가족찬양제에 처음 출전한 것은 29년 전인 1980년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서울에 있는 송학대 교회에서 였는데 전년도에 3년간의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터여서 가족 찬양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했고 이제 10살, 7살의 두 아들만 있는 터여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을 사람이 없어 찬양제에 참가할 계획이 없었는데 찬양대 대원들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교회의 방침이어서 마지 못하게 참가해야 할 입장이었다. 더욱이 우리는 부부가 다 찬양대원이라 더욱 그랬다. 공여지책으로 작은 아들이 아직 변성기가 아니어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을 만큼 고음을 낼 수 있어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기로 했고, 이 권사는 엘토, 나는 테너

그리고 큰 아들 김동환은 베이스를 맡아 찬송가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를 불렀다. 이 곡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작고하셔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여도 대가족 제도여서 많은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잘 자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들과 결혼하면 소프라노 파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305장을 불렀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가족 찬양제에는 우선 두 며느리가 있어서 소프라노 파트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 큰 손자 성재가 첼로를 연주하고, 작은 손자 민재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 나의 평소 꿈이던 3대가 찬양하는 기회가 되어서 흐뭇한 일이었다. 다만

작은 아들이 친척 매형이 개척하신 교회의 EM 목회를 돕느라고 다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다른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큰 며느리 이정은 집사가 작은 며느리와 시간을 잘 조정해서 어느 토요일 두 가족 11명이 피아노 앞에 모여 큰







아들 김동환 집사가 선택한 곡을 연습하고, 두 가족 11명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니 내가 평소에 꿈꾸던 것이 찾아졌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이 제 형의 집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소에도 한 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기회가 잦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족찬양제에 참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연습을 하고 두 가족이 합동하여 저녁을 준비하고 한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 믿는다.



찬양제 결과도 예상치 못한 대상을 받으니 정말로 만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감사함을 경험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불러서라기 보다 70세 된 할아버지로부터 2살 된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다 소망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예일 가족찬양제가 많은 가족들이 참가하여 주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찬양제가 되기를 기도한다.

## 가족찬양제를 뒤돌아 보며



제5남선교회  
한진 집사

“아빠!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닫혀있어요?” 이 질문은 나의 딸 레이첼이 가족찬양제를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파킹장에서 차에 탄 후에 내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인 딸의 행동은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가슴 터져라 내지르는 딸의 탄성과 환호!! 어지껏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처음으로 대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모습도 흥분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질문은 ‘과연 나의 가족이 드렸던 찬양을 주님께서도 받으셨을까? 그래서 나의 가족에게 2등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은총을 내려주신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가족찬양제에 참가를 할까? 그만둘까? 하는 결정을 나 자신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창피하다며 아이들조차 싫다고 하는 바람에 참가 결정을 섣불리 내릴 수 없는 시간을 지내고 있던 중에 ‘왜 찬양제에 출전해야 하느냐?’ 하는 아이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즐기는 가운데 너무도 감사하는 시간을 지내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나의 대답에 아이들이 수공을 해주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나는 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꼭 선정을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많으신 분들이 음악선생님, 교수님 또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등. 상당한 실력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웬지 나의 가족이 상당히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찬양제를 맞이하는 나의 가족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곡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능력도 실력도 없는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참가하는 가족찬양제이기에 아이들에게 바이올린만 연주하게 할 것이 아니라 노래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1절은 영어로 다 함께 노래하고, 2-3절은 한국어로 우리 부부가 노래하고 아이들은 악기만 연주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첫 계단부터 난관에 부딪히며 처절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아들 대니얼이 노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알리지를 시작해서 그때는 상태가 너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 번을 달라고 이해를 구했지만 아이들의 노래에 대한 동참은 이루지 못했고 단지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몇 번의 연습이 지나가고 집에서 목장예배 및 교회에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정과의 만남이 있었던 날에 작은 찬양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있는지 궁금했었으니까요. 모두가 즐겁게 받아주셨고 많은 용기와 격려의 말씀 또한 주었습니다. 집에서의 몇 번의 작은 찬양제를 지나며 아이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 후로는 연습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 한 사람씩 보면 참 많이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한국어로 찬양제에서 한국말로 모두 함께 찬양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약한 편도선으로 인해 본인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없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나 역시 노래도 그렇고 직접 하기로 한



피아노 반주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내가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약하지만 또 아름답지 않지만 가족찬양제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나의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가족은 참 즐거웠었고, 행복했었고, 서로를 도닥거리주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족찬양제를 전후하여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신청서를 받으신 윤승진 목사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미소와 함께 “너무 잘 결정하셨다” 고 반가워 하시고, 용기를 주신 것, 또한 저희 집에 작은 찬양제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도움의 말씀을 주셨던 믿음목장 식구들과 여러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찬양제 당일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만나게 된 세 분의 심사위원의 격려의 말씀과 심사하신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상식이 끝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시작으로 그 날 그 곳에 계셨던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찬양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제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 분이랍니다. 바로 홍숙희 집사님! 찬양제로 잔뜩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갑자기 나의 몸 쪽 45도 후방에서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그제야 또 다른 현실을 직시한 나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 홍숙희 집사님께서 바로 나의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 나의 긴장감과 떨림이 10배 이상으로 솟아올랐고, 사실 난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고, 어떻게 피아노를 쳤으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나의 가족의 찬양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긴장되고 떨림 속에 있던 내가 찬양의 끝마침과 함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옆에서 들려오고 보이는 홍집사님의 크나큰 탄성과 환호 그리고 정말 뜨겁게 쳐주시는 박수와 얼굴에 가득한 화사한 미소를 맞이하고서였다. 그때 느낀 것은 ‘나의 가족이 아주 형편없이 못한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찬양하는 동안에 병 주시고 약 주신 홍숙희 집사님! 나의 추억의 책장 속에 영원히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족찬양제를 치르며 많은 감동의 시간, 헌신의 시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가슴 뭉클했던 시간 그리고 사랑의 시간 등등... 이 모든 것을 느끼며,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함께한 나의 가족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아름다운 시간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주님께 나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 전교우 수련회를 통한 은혜



제4여선교회  
이은미집사

여름 수련회를 가기에 앞서 마음에 갈등과 감동이 있었다. 먼저 갈등이란 여러모로 집을 떠나있기 싫었고, 감동은 예상치 않은 목원 가족의 권유함이 있어서 당일 결정하고 무조건 목원들이 같이 움직이기로 하여 정작 3일을 다 참석하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였다.

첫 날 저녁 말씀은 “지식인가 관계인가” 라는 주제였다. 하나님 사랑의 성령의 능력을 느끼면 변화가 오고 또한 행복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으로 내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마음의 밭! 겨울 내내 비와 눈으로 얼었다가 녹은 것에 어디선가 흘러서 내려온 모래와 작은 돌들이 모여 꾸덕꾸덕하여지고 듬성듬성 무성하게 올라온 잡초들로 우거진 이른 초봄의 돌밭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호미로 바쁘게 마음의 토양을 일구고 다지셔서, 다음날 들려주실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다.

다음날 아침 예배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주제로 요한복음 8: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좋은 신앙인이 된다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며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에 덜커덩하고 무거운 물건이 내려앉는 소리와 머리에서는 쿵쾅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좌우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꼭 아주 미세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것이었다. Significant Lif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그 사람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창세기1:27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음과, 시편의 신묘막측하게 (Carefully and Fearfully) 우리를 지으심과 요한복음3:16절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시편의 27:10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여주신다” 는 말씀으로 그 아침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나온 세월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필름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물 두 아들들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데 ‘어머나!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이야!’ 특히 작은아이에게 엄마로서 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잘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못되게 하고 있었고, 자녀를 향하여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마음들이 쓴 뿌리들이 되어 깊이 내려서 자라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작은아이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에게 내가 했던 나의 언행들을 생각하니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덜커덩,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고 저리며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며 작은아들이 엄마인 나를 용서하게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래야만 작은아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이란 이렇다. 첫째, IDENTITY 와의 연관이다. 저 작은 아이를 내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이 아침에 깨우침은 어느 때와 다른 것이었다. 언행에 있어서





엄마라는 권위로 자식을 보았던 나! 이 아침에는 저 깊은 영혼, 내마음속에 은연히 내려앉은 쓴 뿌리가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것은 감히 온전한 엄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귀엽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다 지나가고 사춘기로 몸살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런 아들의 시기를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마음과 몸이 따로 내안에서 행동한다.

대체 이 아이가 왜 태어나 부모를 괴롭히고 내가 이 맘고생을 하나 하는 자녀를 향한 가혹한 마음, 이 마음에 처절한 회개를 하게 하셨다. 아직도 이 생각을 하면 가슴 떨리고 무섭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마음, 작은아이의 영혼을 매일매일 서서히 죽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갖게 방해하며 하나님사랑, 부모사랑, 엄마사랑을 받지 못하게 훼방하는 이 마음을 다 어찌 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엄마인 나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미 마음에서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껍데기 몸만 같이 지냈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절대 할 수없는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아이는 벌써부터 온전치 못한 엄마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기에 온전치 못한

영향력에 나오는 반사작용,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돌려주는 언행은 뻔한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거슬리게 행동하고 제 머리와 신체성장이 다 컸다고 하여 마구 행동하고 반항하고 제 멋대로 하는 언행들... 이런 행동하는 아이를 두고 보는 엄마로서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 거치는 과정인 것으로 자녀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면 당연히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이 아이의 영혼에 영성을 강건하게 함을 훼방하는 엄마, 믿음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 엄마인 내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저 아름다운 본향에서 내려온 우리를, 나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원 위치로 돌려보아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마구 뚫다.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해야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작은아이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은 못한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의지나 계획으로 자녀에게 향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과 능력으로 100%가넘치는 전폭적인 사랑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기회는 참 좋았다. 마지막 저녁 예배 때 모든 자녀들과 참석한 전 교인이다 같이 찬양하고 발표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세족식을 하는 밤. 두 아이 다 세족식을 차례로 하고 기도하고, 작은아이한테 엄마가 너를 온전히 사랑 못한 나쁜 엄마였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니깐 아이가 펄쩍 뛰었다. 얼마나 못됐던 엄마 속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엄마 속상하게하고 말 안 들어서 나쁜 아들이었고 자기도 엄마를 더 사랑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감사할 일은 서로 용서 구하고 서로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바로 주어진 것이다. 장남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게 된다. 장남은 자기 처신을 잘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그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부모 된 우리는 믿는다. 차남은 이제 11학년이 된다. 앞으로 길면 2년이요 짧으면 1년, 그동안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 이 아이는 영육이 강건해지고 집을 떠나있어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믿음의 도성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어디에 가셔도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속에 품었던 쓴 뿌리가 삭제됨을 느꼈고 그로인해 주의 영이 내안에 계심으로 자유 함을 얻은 것 같았다.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평안하여졌다. 앞으로 1년은 나나 아이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온다. 순풍을 만나 잘 흘러 떠다닐 수 있는 저 작은 배가 되었다.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든다.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람도 안 무섭고 사춘기도 안 두렵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겨지며 룰루랄라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자, 수련회는 이렇고 집에 돌아와 현실은

어쩔꼬? 생활에 부딪쳐서 마찰은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우선 남편에게 고백했다. 차남에게 향하던 나의 마음에 있던 쓴 뿌리와 깨달음, 다시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나를 도와 달라고 청했고 같이 차남에게 잘하자고 대화를 나눴다. 부끄럽지만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참으로 놀라워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내속에서만 삭인 것이 다행이며 하마터면 차남의 영혼을 죽일 수 있었다고 꾸지람 들었다.

그래도 좋은 게 지금이라도 남편과 얘기하고 회복하기를 간구함에 있어서... .. 장남은 수련회 오는 즉시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남편은 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이 기숙사에 떠나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차남은 그동안 나누어 받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게 되었다. 엄마인 내가 나도 모르게 전에 큰 아이에게 집중했던 것들을 이제 작은아이에게 마음 편히 다 줄 수 있어서 좋다. 한 번 더 머리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뽀뽀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눈으로 아무 때나 봐 줄 수 있고, 건성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루스케줄도 작은아이 위주로,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것이 큰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나날들이었다. 이제는 마음껏 차남 생활중심으로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충만한 은혜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 마음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골라서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작은  
 아이가 대니쉬를 싫어하는지 몰랐다.  
 두 남자아이들이 사다놓는 음식은 빨리  
 없어져서,

그런데 생각해서 사온 대니쉬를  
 먹으라고 주니까 작은아이의 하는 말  
 자기는 이런 단것을 싫어하고 안 먹고  
 형이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 엄마인 나는  
 그것을 창피하게도 이제껏 몰랐다. 한식  
 양식 대강 잘 먹어주는 차남이라 식비가  
 반으로 줄고 식사준비 시간도 반으로  
 줄고 식사는 우리가 먹는데서 조금만 신경 쓰게 하는  
 이렇게 고마운 자녀인데.....

밤에 잠자리를 살피주기 시작했다. 아이들 방은  
 2층에 있고 안방은 1층에 있는데 윗 층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기가 불편하여 형이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끼리 잠 잘 시간 되어 올라가면 “잘 자!” 라는  
 한 마디하고 내방으로 왔던 나, 지금은 기어이 아이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잘 누웠나 살피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까봐 장남 침실에서 자게 했다. 부모가 아이  
 침실에서 밤마다 같이 자주니까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자라며 자기는 괜찮다고 했다. 마음에 평안을 얻은  
 얼굴이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작은 것에 세심한 마음을  
 주니까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고 횃수가 늘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아무  
 표정이 없던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사춘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마음에도 없이  
 엄마를 못마땅해 하고 통통거린다. 부드럽고 조용한  
 말씨는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질문하면 통명하게



내치는 외마디 대답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저 눈빛들...  
 그래도 오며가며 아이의 몸에 손을 닿게 하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하며 만지고 지나가도 이제는 내치지 않고  
 가만히 받아주는 작은아이가 예쁘다.

내가 이렇듯 인내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이다. 사춘기라 아이가 머리에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는지 1시간 전에 얘기해서  
 대화를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후에  
 실행하자고하면 아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하면서  
 따지고 자기의 주장이(주장할 의견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하며 엄마에게 황당하게  
 떠들고 큰소리를 지른다. 어이없이 당한다. 다른 때  
 같으면 아이를 잡으려 하고 꼬치꼬치 따졌을 텐데, 아차  
 엄마가 실수해서 이해를 못했으니 미안하고 다음에는 잘  
 얘기하자고 하면서 아이를 다독거린다. 그러면 아이는  
 수그러지고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아까 행동 미안해요”  
 하며 영어로 아주 짧게 하고 간다.

이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장소와 이목을 가리지 않고 자기 엄마를  
 가르치려하고 야단치기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도 안 밋고, 오히려 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있어 속에 있는 것 다 풀 때까지 듣고 진정할 수 있도록 살살 조용히 대꾸하고 집에 와서도 아이에게 기분 나쁘게 “네가 왜 엄마를 공공장소에서 창피를 주냐?” 는 등의 훈계보다는 “엄마가 너의 말을 잘 이해 못해서 너를 흥분하게 하고 화내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똑바로 잘 할게” 하고 사과하였더니 아이도 염치가 있었던지 다 듣고 나서 사과를 받아주며 미안하다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 한다. 나는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의 험한 마음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음을.....

부지런함과 인내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엄마이자 신앙 선배로서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나의 후유증은 과거의 엄마였다면 아이에게 받은 stress를 남편한테로 향하였을 텐데 이제 나의 마음은



그저 평안하기만하고 아이하고 멀어졌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기에 주님께 감사하기만하며 평온한 가정을 그날도 유지할 수 있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귀중하게 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작은아이에게 내어줄 것 이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 참으로 순수한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에게 계속 다가갈 것이다. 저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든든한 믿음을 갖고 다 장성하여 어느 곳을 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임을 나는 믿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 내 생애 첫 수련회



박선희성도

글을 시작하기 전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예일교회 박성우 김영애 집사가정의 동생 박선희입니다. 오빠 언니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온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조기유학을 위한 극성엄마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께서 그곳으로 두 어린 양을 이끄시지 않았나 조용히 생각해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실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심각합니다. 눈뜨면 학교가서 공부하고 이후 각 과목의 학원순례를 마친 후 밤 늦게 집에 돌아오면 학교숙제 학원숙제 시험공부...

인성과 좋은 품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 모두가 공부를 위해 사지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의 자아존중은 잇은채 욕하고 매질하고 자존심에 상처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못된 짓을 해도 학교를 빛낸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는 그런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에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어도, 집에서 놀며 아이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냐는 주위의 말을 들을까봐 엄마의 사랑과 참된 마음을 보여주기 보다는 더 열심히하라는 질타와 비교로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엄마였습니다. 공부를 잘 하게 만드는 것 만이 부모의 의무이자 훈장인양 살며, 나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한국의 환경만을 탓하며 낮설고 물설은 미국으로 아들의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빠네 가정이라고 하지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었던 언니와 여러가지 정보를

나누며 준비한 후, 아들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미국에 도착하면 주께서 저와 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아무것도 모른채 두려움과 설렘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저희 친정식구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찾지 못한채 헤메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초 마음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친정엄마와 교회에 잠깐 나갔었지만 예배도,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마음 속에는 수 많은 걱정과 근심에 은혜로운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자책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뺏은 손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첫 주일 예배시간에 한국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줍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 정성껏 준비된 베이글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격려해 주고 주안에서 형제 자매로 지내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저까지 가슴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나지막하고 온화한 음성, 생전 처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힘차지만 고요하게 마음을 울리는 성가대의 찬양 그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날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첫 수련회...

아들만 보내고 저는 가지 않을 마음이었는데 무엇이 저를 이끌었는지 제 입으로 가고 싶단 말이 나왔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여행스케줄을 잡아보려고 했던 터라 미리 등록하지 못해서 방을 배정 받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 두 분과 방을 같이 쓰며 소파에서 잤는데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수련회 예배동안 소리 높여 주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조금 놀라고, 생소한 광경이라 잠시동안 조용히 머뭇거리며 주위 성도님들을 힐끗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둘째날 오전 집회 “쓴 뿌리와 용서”의 말씀을 듣는 중에 머리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한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 질투, 용서못함, 자만심이나의상처로 되돌아와서 고통의 감정을 저 밑바닥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가장 약한 자, 내가 보호하고 내가 영원히 지켜주어야 할 나의 소중한 아들에게 쓴 뿌리를 토해내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린시절 내가 받은 상처를 그들을 미워하다 나도 성인이 되어 어느새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정말 나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나의 관용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저의 오만한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7년 터울이 나는 남매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은 오빠만 사랑하시고 오빠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빠와 나는 별개의 사람이다. 미국에 간 형제가 뭐 필요하냐?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자.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친정집에 대소사가 생길 때 왜 나 혼자만 이런 걱정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나? 미국에선 “어머님 아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꺼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살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다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이런 뒤치닥거리에서 빼내줄래? 아! 불과 몇 개월 전 생각들입니다. 그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부모를 위한 미국식구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의 음성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간구를 부정하고 내 맘대로 오해의 쓴 뿌리를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쓴 뿌리와 용서”의 말씀이 있으신 그날 저녁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때 저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의 아가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나의 오만과 편견의 쓴 뿌리를 지금 이순간 잘라내어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 내려놓자...”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때문인지 숨죽이며 저의 눈물을 닦아주더니 슬그머니 나가더군요. 자식이지만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무릎꿇고 용서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잔치 같았습니다. 세족식을 끝내고 캠프파이어에서의 간증시간. 전 그날 간증이란 말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떨림의 손으로 제 손을 누군가가 잡아 끄는 것 같았습니다. 두서없이 떨림으로 마음의 소리를 전하는 동안 저는 눈물 맺힌 오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시절 힘들었던 그러나 부지런하고 희생적인 부모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아 지금 이만큼 장성하여 각자가 담당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오누이의 마음을 서로 내어놓고 밤이 깊도록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하는 학교생활보다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품에 맡기고 돌아갈거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후 언니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와는 밤새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인내하며 살아 온 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갈 때 큰 용기와 믿음을 주십사 하고 떨림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주님은 제 떨림의 소리를 붙잡고 제 곁에 와주셨습니다. 전 지금 예배시간에 누구보다 더 두 팔 벌려 찬양하고, 두 손 힘차게 모아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는 수요일찬양예배를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살면서 느끼는 고충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슬픔의 소리를 느끼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향한 첫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지만 또한 제게 시련과 고난의 고통 또한 주실 것이란 것도 알고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항상 달콤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주실 것임을 믿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미국식구들의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확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따뜻한 기도예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주신 김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가장 가까운 오빠 언니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저의 멘토로 삼아 믿음을 얻은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뉴욕예일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목장식구들 서로의 가족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너무나 바쁘고 힘드시지만 항상 미소띤 얼굴로 묵묵히 제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모습에 위안과 희망을 얻고 왔습니다. 며칠전 아들녀석이 “임마누엘” “주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더군요. 가끔씩 보는 화상통화 화면에서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시간 저는 한국에서 두려움과 자식을 놓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쓴 뿌리를 키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가서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을까봐 걱정하는 오빠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 말을 가슴깊이 새기며 지치고 힘들때마다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뉴욕 예일교회 성도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날 손뭉쳐 기도하며 성령충만한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2011년 어느 가을날 한국에서

## 성경퀴즈대회 관전기



청년부  
강민석 형제

2011년 어느 가을 날의 주일오후, 교회 곳곳에서 여러 성도들이 분주하게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그들은 교회주변 잔디밭, 주방, 친교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회준비에 열심이다. 나의 목장, 청년부실 역시 대회 출전자들의 학구열로 뜨겁게 달아올라있었다. 그들은 서로 공부한 것 들을 물어보고 답하며, 성경공부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 교회 이곳 저곳에서 성경퀴즈대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교회행사에 참여할까?’ 하고..

우리교회는 행사와 훈련 그리고 모임이 참 많다. 사실 이런 것 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성도들에게 때론 부담이 될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예일성도들은 그 많은 행사와 훈련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하고 있다. 이번 성경퀴즈대회를 통해서도

쉽게 알수 있다. 이번 대회의 범위였던 열왕기상, 하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공부할 분량이 상당히 많고 쉽지 않은 범위였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노력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듯 척척 맞추었고, 또한 3회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참가기회가 주어졌을때, 좁은 무대 위에 앞다투어 올라가 참여하는 그들에게서 그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사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이면 한 두번 하고 말 것이고 대충 하고 말 것 이지만, 우리 예일성도들은 이렇게 매번 모든 행사에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진정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이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시간을 돌려, 올해 1월 내가 처음 예일장로교회를 방문했던때로 기억을 돌려본다. 처음 온 교회였기에 조금은 어색했지만, 예배시간과 교제시간을 통하여 성도들간에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그 처음의 좋은 교회 분위기를 통하여,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믿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차츰나 또한 예일의 성도답게,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예일교회를 통하여 멀어졌던 주님과 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나와 내 주변사람들이 선명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말씀처럼, ‘즐거운 교회생활’ 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예배와 훈련을





마음가짐으로 교회생활에 임하려 한다. 혹시, 이 시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짧은 글이 그에게 권면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 즐거운 교회! 예일 성도 여러분 파이팅!..\*

- 그리스도의 청년 강민석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신앙이 성장되고, 목회자와 목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되는 이 훌륭한 교회의 일원임이 나는 이순간 너무도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교회, 예일장로교회로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성경퀴즈대회를 관전하고, 요즘 조금은 무거워졌던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가벼워졌다. 시험기간에 갖는 교회활동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나에게 성도들의 즐거운 참여는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마땅히 내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려야 했지만, 바쁜 일상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어차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 또한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말이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다. 이제 다시금.. 예배, 훈련, 교제, 봉사의 모든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즐거운



# 사랑의 덩 버 선

라은숙 권사님을 만나다

편집부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일교회를 섬겼거나,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켠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수제품 털실 덩버선’ 이다. 이번 예수마을 14호에서는 섬김의 마음을 담아 몸소 실천 하시는 사랑 덩버선의 주인공— 라은숙 권사님을 만나보았다.

3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맛난 점심과 함께 친교를 갖은 후 였다. 오후 찬양예배를 드리기 위해 잠시 기다리며 선교회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신 권사님 앞에 슬며시 다가서서 “권사님 시간 좀 있으시죠?” 하며 의자를 끌어 당겨 앉았다. 성경 암송대회, 찬송가 외워부르기 대회 등 선교회들이 주최하는 교회 여러 행사에서 당당하게 마무리를 장식하시며 성경을 줄줄 암송하시는 모습과는 달리, 본래는 수줍음 타시는 성격이신가 보다. 예고 없이 다가 앉으니 무슨 일인가 하여 얼굴을 살짝 붉히신다.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하고말끝을 흐리니, “1938년 3월 10일 생이예요” 하신다. 손가락으로 대충 셈을 해보니 7학년 4반 학생이시다. “예일교회 섬기신 지가...” 이번엔 끝까지 질문을 마무리하려했는데 “1999년 12월 부터지요” 예상문제 맞추듯 바로 대답이 나온다. 역시 -걸어 다니시는 성경-이란 별명에 걸맞는 기억력을 가지고 계셨다. “덩버선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교회 온 다음 해부터이지요” 다음 질문도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임으로 해주신다. 오늘 인터뷰는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예일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과 함께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새 가족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가 여러 교우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다. 이 행사는 바나바 사역부가 준비한 새가족 환영회를 마친 토요일 다음 주일 3부 예배시간을 통해 갖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기쁨과 환영의 꽃다발과 함께 새가족에게 드리는 여러 선물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은숙 권사님이 손수 제작한 수제품 털실 덩버선이다. 13년여 동안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예일의 모든 새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 권사님의 사랑의 덩버선에 대해 조금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덩버선 으로 섬기신지가 13년이 되어가는데, 몇 켠레나 만드셨어요?” 이번에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전에 섬기던 교회까지 하면 약 1000컬레 정도 만들었지 싶네요” 하신다. 언제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 시간이 나시는지 물으니, 수시로 시간이 날 때 마다 만드신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덧버선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가 여쭙 보았다. 덧버선을 드리는 마음은 새 가족들이 우리교회에 오래오래 정착해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 하나 뿐이라고 하신다.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소박한 마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평생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덧버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섬김이니, 너무 관심가져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겸손해 하시기에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 암송을 잘 하시게 되려면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세요?” “통독은 해야죠.... 한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통독!! 일년에도 일독하기 쉽지 않은 인터뷰어의 얼굴이 후끈거리는 대답이었다. 게다가 평삼주오까지 합치면 일년에 통독 13독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니 성경 한 두 구절 외우는데도 머리에 쥐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해, 시편 한장 정도는 끄떡없이 암송하시는 것이 별반 특별한 것도 아닌 것이 이해가 된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 삼대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몇 안되는 가정들 중에 속하기 때문에 가족 사랑 좀 하시라고 하니, 손자 부성이가 어려서 건강하지 못했을 때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신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며 감사하고 계신다고 교회 성도님들 자랑으로 대신 하신다. 슬하에 용재 용선 두 자녀를 두고 계신데 장남인 라용재 집사는 NYIT(뉴욕공대)에 속한 모든 전산및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IT계열의 재원이며 교회의 컴퓨터와 여러 전자장비를 돌보며 섬기고 있다.

인터뷰를 마감하며 교회를 위해 바라는 소망과 1선교회에 바라는 마음 그리고 권사님 본인에게 바라고 싶은 것을 예수마음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첫째 교회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교회가 부흥하여 더욱더 선교지를 넓혀가는 것과, 제직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을 손꼽았고, 선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생을 사는 것 그리고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믿음생활의 진보와 봉사사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주시는 것 등이었다.

인생의 남은 여정을 이제는 관조하며 보낼 수도 있는 연륜인데도 아직 진취적인 사고가 넘치는 권사님을 보며, 인터뷰 하는 내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



바나바사역부장  
방영희 권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예일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우리 예일가족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45개의 사역부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바나바 사역부를 섬기며 새로오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마을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 오신 가족들이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에서 벗어나 빨리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정착사역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을 제일 먼저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며 새가족들을 총괄하시는 윤승진 목사님이 계시고 바나바 사역부원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이제 27기를 마쳤는데 1년에 45회 정도 새가족 만남(5주 코스)과 종강 파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므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찾아 오시는 분이 제일 많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와 이웃의 권유로 ... 좋은 소문을 듣고... 또 이사를 오게 되어서 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청년회, 7선교회, 6선교회의 젊은 층의 성도들이 등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5주 동안 새가족 공부를 하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립되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종강파티에서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행복한 믿음생활을 갈망하며 결단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 드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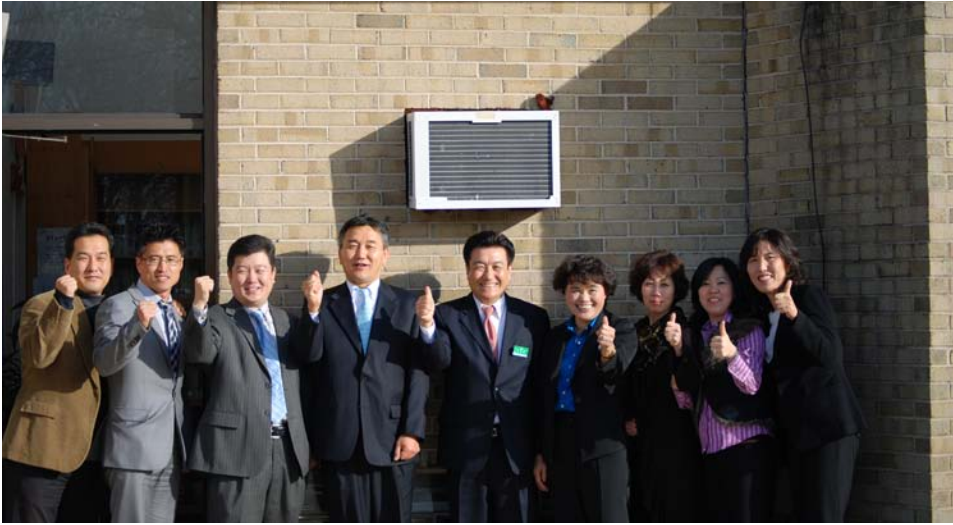
있고, 또한 바나바 사역부원들도 일대일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의 간증 가운데는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교회나 목장에서 도우셨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지 않도록 같이 앉아 주고 전화해주시고 밝은 미소로 주는 사랑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짐을 인하여 선교회도 다르고 목장도 다르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지요?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나는”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먼저 섬겨 주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잡아 주실 때에 처음 오셔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지라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큰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맡겨주신 부서에서 충성하신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사역부원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온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는 좋은 바나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겔39:25) 이와 같이 이 모든





\*작년동안 6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며 바나바 사역을  
완전정복하신 장경철 장연희  
집사님

\*사진도 잘 찍으시고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준비됐다고  
말하시는 유성민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혼적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정재남 김미자 집사님

\*종강식에는 어김없이 예쁜  
꽃다발로 수고하신 꽃순이  
김경숙 집사님

열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만남 5주를 하신 후에는 특별히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정착율이  
99%가 되는 것을 보며 꼭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5주  
만남을 꼭 권유해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류 사진사이신  
정재도 집사님

\*모든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꼭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박성우 김정업 집사님

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나바 사역부원들을 항상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윤승진 목사님

\*바나바 사역부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조종희  
장로님

\*연세(?) 만큼이나 말없이 모든 바나바 일을 총괄하신  
박용훈 집사님

\*만 언니 같이 모든 일을 쉽게 깔끔하게 끝내시는 김순영  
집사님

\*두 발이 부족하여 부지런히 뛰시며 외로운 새가족들  
찾으시고 또한 모든 바나바를 잘 먹여 주시는 정미자  
집사님

\*찬양을 더 좋아하지만 금년에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신다며 열심히 섬기신 권병숙 집사님

\*바나바 사역부의 막내답지 않게 항상 촉촉한 눈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곽정희 집사님

## 바디워십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4여성교회  
김연신 집사

바디워십은 성경속에서의 무용을 통한 말 그대로의 예배무용이다. 이것은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 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은 성경속의 무용을 거울삼아 배우고 순종하며,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을 몸으로 표현해 낸 무용을 “바디워십”

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추는 자극하는 듯한 몸짓이나, 눈과 마음을 현혹시켜 현란케 하여 자아도ちに 빠져 흔들어대는 듯한 몸놀림등을 성전안으로 끌고 들어와 춘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바디워십이라고 말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몸짓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이 들어있지 않은 그저 의미없이 흔들어 대는 한낱 육신의 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육신의 춤이란 성경에서 비추어 볼때에 아마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인 헤롯왕 앞에서 추었던 춤과 같은 것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사역부서와 마찬가지로 무용 또한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동기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영혼을 죽이도, 또한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춤을 추었던 미리암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왕처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몸의 찬양, 표현을 예배무용 즉 “바디워십”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바디워십 은

첫째 : 하나님께서 우리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감격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것.

둘째 :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수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과 겸손함을 드리며

셋째 : 영혼을 살려 내고 치유와 회복과 힘을주는 무용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내포한 움직임 등을 기초로 하여 늘 기도와 감사, 그리고 받은은혜를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바디워십은 하나님을 알게하고 또한 예배분위기를 창조하여 찬양이 예배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오로지 구두로만 선포하던 진도와 선교를 음악과 더불어 몸으로 찬양함으로써 타문화권의 세계를 향해 몸의 언어로 쉽게 다가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수월하게 해 주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있다. 바디워십은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리듬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을 단합시키고 가깝게 한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고 배플면서 서로 섬기게 되어 친밀감을 더해 줄뿐 아니라 때로는





소외되고 낙오된 곳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친교와 봉사적 역할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반면 바디워십은 치유적 복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된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한 치유의 전이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기쁨을 동반한 이 예배무용은 찬양자 자신이 먼저 치유 되어 지며 그 치유함이 흘러나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가 나음을 입게 하는 치유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바디워십의 사역을 크나큰 감격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론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어 힘들고 어려움 등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무용이 화려하거나 테크닉이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풀어주셔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무용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며 주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심으로 힘든 가운데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춤으로 더 간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단원 모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로 그때 그때 임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무용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굳어진 심령과 메마른 마음들이 주님의 이슬같은 은혜로 축축히 적셔줄 수 있는 시간 시간마다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 비록



## 또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5남선교회  
최 혼집사

우리는 늘 주님께 축복, 행복, 돈, 명예 등등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면 시험들곤 하는 정말 속절 없는 믿음 약한 자기주의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면 교회 안나오기 일쑤고 하나님 사랑앓고 교인끼리 비교 비난하기 일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몹시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기에 우리 죄가 사랑의 하나님의 관심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느날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스그룹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서 바디워십으로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꿈은 특별한 의미를 세계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바디워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특별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드리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고 싶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온 맘다해 정성다해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Jesus Generation 유스그룹' 이 정성드려 올리는 기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바디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는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잠시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누가 올려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들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나 아니면 짧은 기간에 정착할 교회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먼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적응 문제를 우선시 하고 성도와 자녀들과의 적응이 맞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하던 못하던 노래로 찬양을 드리던지 악기로 찬양을 드리던지 몸으로 드리던간에 왜냐고요 세상의 중간은 멎들어 참사랑(주님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한 우리 자녀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의 열정이 멎들지 않고 뜨겁게 연결 될 때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은



웬지 가슴이 뭉클해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만해도 특히 유스그룹 바디워십팀이 주님께 정성드려 올릴 때 멎든 가슴이 치유받고 축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 유스그룹 꿈나무들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사랑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 겸손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찬양대지휘자  
조성식집사

101 제자훈련은 새신자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 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교만한 생각은 첫 시간부터 무너졌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찬양대 지휘자인데 혹시 나의 성경적 지식이 형편없다는 것이 알려지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창피함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진 첫 시간부터 두려움과 창피함 보다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다. 놀라우리 만큼 해박한 성경지식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조 장로님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 101을 통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왔던 모든 것이 어저면 나의 교만 때문에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너무도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이 때에 나에게 왜 제자훈련을 하라고 하셨을까? 결론은 나를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2009년 부터 지휘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일교회의 찬양대를 내게 맡겨 주셨다. 너무도 기뻐다. 예일교회 찬양대는 좋은 소문이 나있었고 지휘자들이 지휘하고 싶어하는 찬양대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소문대로 찬양대는 너무도 좋았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찬양대를 맡겨 주셨는데 영적인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년 반은 찬양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니 너무나도 좋았다. 그래서 조금은 기도를 게을리 했다.

그다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교회의 행사에도 찬양대의 힘든 스케줄을 잘 따라 오시는 대원들이 고맙기만 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왔던 것 같다. 그런데 101을 하면서 나의 큰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셨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실전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때에 101 제자훈련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서는 예일찬양대 지휘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서 힘있게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말이다. 또한 기도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말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인하여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패기도도 하게 하셨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단하게 하셨다. 이제는 받은 바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 것이다. 보다 겸손하게 섬기며 말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제5남산교회  
김재운집사

초등학교 4학년때쯤 교회를 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다 경험하면서 즐겁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친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나의 성격은 참을성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나의 생각이 가장 올바르다고 믿었기에 나쁜 행동을 해도 죄의식이라곤 없었습니다. 교회다니는 사람 또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기적이고 양보심도 없고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9년을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저희 부부는 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같이 일하는 관계로 낮에 아이 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개 받은 분의 남편께서 전도사님이셨고 얼마후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요일마다 전화를 하시는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교회가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한다던가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던가 또는 힘들 때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믿음생활을 키워가던 중 룩아일랜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고 아내는 일하고 저와 아이들만 플러싱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요일에도 가게가 바빠지면서 이젠 저마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삼년쯤 그렇게 교회와 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친구와 연락이 오고 간 후에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 생활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결과로 저희 가정의 생활은 힘들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결과로 생긴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국 아내와의 잦은 충돌로 이어지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제가 뭔가 열심히 전달하고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너무 생생하고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길로만 걸어 간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하던 중 지인을 통해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환영회에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101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순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성령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제자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첫 사랑을 회복했으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 101제자훈련



제6여성교회  
김경애 집사

101 제자 훈련을 마치며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종교는 없었지만, 조상 제사를 드리고 가끔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곤 하는 불교에 가까운 집안에서 1남 4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중에 큰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전 처음 언니의 손에

의해 여름 성경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그저 선물을 주고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만 여겼고, 중, 고등학교 시절 기독교 미션 학교에 입학해서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를 이어 예수를 믿는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위해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는 없는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결혼과 함께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의 큰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체, 시부모님의 기대를 위해 거짓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네.’ 예수 사랑이라고 말 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구속하는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온통 위선 투성이에 이기적인 면만 내 눈에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느니 못하다고, 감사는커녕 제 속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6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 습관이 무서운 건지 남편을 따라 두 말없이 순순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이민 생활 때문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고 부르던 찬양에, 내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 받고, 구원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나의 모습이 결코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준비 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렵듯이 믿음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막내 딸 저를 끄적어도 사랑하신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경애야, 아빠 이제 교회 간다. 네가 믿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믿는다. 이제 조상 제사도 다 없애고, 언니 오빠 전부 교회 가기로 했다 “고 하시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 자초지종을 엄마에게 여쭙어 보니, 아빠가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부산 수영로 교회에 가서서,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미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내 딸과 사위가 믿는 하나님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라며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집안 제사 다 없애고, 믿지 않던 언니, 오빠 다 데리고 교회로 가시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도 나와 가까운 곳에 함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또 보고 싶은 딸이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이 좋고 외롭지 않게 이민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완전 변화된 삶을 사시다, 세례 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가던 오빠, 언니 그리고 형부들까지 모두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끔씩 언니가 저에게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이렇게 친정 온 식구와 형부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이것이 정말 기적임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이 이렇게 믿지 않던 며느리와 친정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음을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죄 많은 나는 또 다시 그 뜨거움도 잠시. 다시 이렇게 밋밋한 믿음으로 지내게 되었고, 그 동안 개척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신앙은 더욱 더 시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일 장로교회에 몸을 담게 되고 동시에 이곳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기도 했고 처음으로 101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 나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살아온 남편과는 너무 다른 나 자신이 늘 부끄럽고, “아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 하고 홍보실 까봐 두려움에, 지금껏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다 나타내고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과, 한 과 교재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기초로 두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위해 노력하며,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어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매여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모든 평안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사는 것에 바쁘고 쫓기던 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늘 못마땅해 짜증내게 되던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조금씩 너그러워져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하게 변화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작으로 인해 끝이 더 나를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늘 깨달으며 변화되기 위해 힘쓰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고, 늘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1 제자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앙의 위치를 변하게 한 101 제자훈련



제7여선교회  
성지하 집사

마루바닥으로 된 교회에 줄을 맞춰 앉아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빈 종이에 그림 그리던 것이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의 하나이다. 아마 그 시절에는 유년부가 없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그랬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삼남매를 버스를 두 번 갈아 타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가셨다. 아버지는 당시 사업으로 바빠서 주일 날 같이 안 가시는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이야기와 자장가 대신 불러주시는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중고등부, 대학부를 다니면서 내가 가졌던 신앙은 스스로 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부모님의 강압과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 같은 그런 죄의식 때문에 교회 가는 의무 의식이 더 많았던 거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히 직장을 두바이로 옮기면서는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기도 생활도 점점 덜하게 되고 성경은 한번도 펴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다 결혼 후



미국으로 오게 되고 맨하탄에서 Redeemer church를 나가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미국적인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부담 없이 하는 생활로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게 되었다. NJ Hoboken으로 이사간 후 Home Fellowship 그룹에서 많은 1.5세를 만나면서 다시 기도 모임도 나가고 정기적인 목장예배도 드렸으나 둘째가 태어나면서 Huntington으로 이사오고 나서는 교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Northshore community church에 다녔으나 왠지 적응이 안되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주일날조차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으나 편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던 내가 다시 예일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다. 예일 교회에 관악단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클라리넷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여러 번 플룻을 이미 할 줄 아니 같이 다니자고 하셔도 절대로 안 간다며 관심도 없었는데 일년 좀 넘기 전에 갑자기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가 온다며 온 관악단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번 가봤는데 온 관악단원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못한다고만 생각했던 플룻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꼭 다시 오길 여러분들이 진실히 원하기에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다. 한달에 한번 헌금송이 있는 날만 예일교회에 다니기를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유치부에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마음이 든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김송기 전도사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부에 간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전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익숙치 않은 교회에 한국말로 하는 프로그램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데 익숙치 않아 가기 싫어하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몇 달이나 같이 유치부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 없었다면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데에는 박성하 전도사님의 기도와 권유와 칭찬의 힘이 크다. 성가대에서 플룻이 같이 하면 좋은 곡이 있다고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니 매주마다 다음주도 나와달라고 미리 곡을 주시면서 부탁하시길 한달 정도 하신 후에 성가대원으로 임명 받아서 같이 하자고 강권아닌 강권을 하셔서 7 월달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여동생이 첼로 전공이고 남동생이 플룻전공을 하려다 만 실력이 있지만 나는 한번도 잘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다. 항상 엘토 파트만 하고 중주를 해야 같이 하는 정도였기에 나를 보고 플룻을 잘한다고 하면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성가대에 플룻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틀리다면서 매주 나와주기를 권하시고, 성가대원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칭찬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마음이 든 것은 다 기도 덕분이다.

이제 겨우 교회 매주 나가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로서는 장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익숙해져가는데, 김송기전도사님께서 101제자훈련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좀 두려웠지만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한 단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크리스찬이라고 말로만 하고 기본적인 성경읽기며 기도하기 등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바꾸고 그것들을 생활화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EM에 나가게 되면서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여태까지는 나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처럼 산 때가 많았으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또 장래의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님의 신앙의 위치를 감당해야 할 때이다. 여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며 기쁨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길 기도 드리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해주신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 십자가안에서의 사랑과 용서



제6여선교회  
박지숙 집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생각

우리 가족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자주 있는 제사문화에 익숙했고, 아무 종교에나 구속받지 않음에 자유스러움이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

미국에 오면서 이모를 통해 알게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가자고 모닝콜을 하시고는 교회버스가 도착 할 시간이 되면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우리 삼남매의 이름을 외치셨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권사님한테 선물받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한 손에 들고 뛰쳐나가서 겨우 예배만 드릴 때도 있었고, 그것마저도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또한 친구는 토요일만 되면 전화해서 고등부예배에 참석하자고 권했고, 6개월을 끈질기게 버티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따뜻하게 맞아주신 전도사님과 친구들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영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

교회에 가서 믿음의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지면서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니는 순간부터 퍽박 아닌 퍽박... 아빠의 경고소리의 강도가 날로 더해갔습니다. 아빠한테 혼날 때마다 듣는 소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미친 짓이고,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너도 같이 미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매일같이 말하셨습니다. 혼날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혼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제발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교회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예배마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은 아빠한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가기 위해 꼬박 열흘을 매일같이 엄마를 통해 조르고 졸라 갔고, 그 수련회에서 가진 뜨거운 찬양과 기도시간 또한 다같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준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당장 응답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교회를 못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아빠가 어떤 분의 끈질긴 전도 끝에 교회를 나가길 결심하셨고, 그 계기로 온 식구가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셨던 아빠가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의 신앙생활 그리고 아빠의 은혜 체험으로 더이상의 갈등은 없었지만 그전에 받은 상처들이 가끔 생각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열흘간 졸라써야 갈 수 있었던 수련회를 내 동생은 단 한번에 가고, 내가 했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 다르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데 어느날 아빠가 찬송하고 싶다고 하셔서 찬송가 반주를 해드리는데 아빠가 좋아하시는 곡 몇 곡을 하시더니 흐느끼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날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지 모르시겠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며



사과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했던 부끄러운 내 자신에 대해 회개하며 나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 괜찮아” 라고 했고, 그 이후로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원망과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온 식구와 다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을 떠나 예일교회에 오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매주 한과씩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핏보면 다 아는 것과 같고, 이것들은 내가 늘상 듣던 것들인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였고, 지난 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자칫 치우치기 쉬운 신앙생활을 잡아주는 가이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요한 훈련과정을 시작해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권사님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내 삶의 증거가 된 10이 제자훈련



청년부  
이현진자매

6살때 처음 교회 유치원을 시작으로 교회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면서 잠시 신앙생활을 못하시다가 제가 교회에 부속된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10월의 늦은 가을 즈음에 뉴욕으로 가족이 모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이어서 이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한다는 것이 어찌나 힘이 들던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아침에 일찍 일을 가셔서 밤에 오시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걸까? 무엇 때문에? 참 많이 엄마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짜증과 우울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때 마다 엄마는 화내시는게 아니라 참으시면서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잘 될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큰 비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해 주실 때마다 너무나 더 화가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 식의 위로와 격려가 다 뭐냐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침대 후반 그리고 이침대 중반을 지날 때 쯤에 Kosta 라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매년 7월 첫째주에 5일간 열리는데 친한 친구의 권유와 강요에 못이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각 주에서 모여들어 그 곳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하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번 집회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 곳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맘이 여전히 가지지 않았던 첫 날 저녁 집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려고 대강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때까지도 내가 여기 온 게 잘 한걸까? 하는 생각을 저 버릴 수 없었던 너무나 불편한 그 상황에서 강당 안으로 발을 내 딛는 순간 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었는지 지금도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않지만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청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내내 진짜 평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5일간 주님과 의 일대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때 처음 그곳에서 개인 상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누군가에게 open 해서 말 해 본적이 없었던 터라 진짜 힘이 들었습니다. 그 상담의 장소로 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고 제 맘을 짓누르던지 5분 거리를 걷는데 한 30분이상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맘으로 상담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저를 상담하시려 기다리셨던 목사님을 뵈는 순간 또 저는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감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시지만 하셨었는데 그냥 제 안에 깊이 쌓여



있었던 어떤 응어리 같은게 특하고 밖으로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시간 정도 지나도록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께서서는 기다려 주시면서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삶의 기적들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그 위로와 기도로 저의 20대는 지나갔습니다. 30대가 되면서 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갖고자 기도하던 중에 예일장로교회에 오게 되고 새 가족 만남의 시간을 거쳐 101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과 한과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하는 그 시간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찾는 것조차 힘들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멘토 집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나눔 그리고 사랑으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깨달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일들을 하나둘씩 눈 앞에 이뤄놓으셨습니다. 직장의 이직문제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고 오랜 시간동안 기도해왔던 배우자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일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멘토 집사님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받으면서 저는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붙잡힘바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시면서까지 나 같이

보잘것 없는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제게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아노라” 하시며 진정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101제자 훈련은 그야말로 제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의 30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여서 너무 기쁘고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감사함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 제자훈련이 바꾸어준 삶



제6남선교회  
박제진집사

201 제자훈련은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비록 다른 분들 보다 2주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훈련을 마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던 장인 장모의 으름장에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교리문답도 없이 세례를 받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10여년 전 유학을 오면서 시작된 미국생활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으니 꼭 하나님을 만나라고 간곡히 장인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몸은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확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신앙심이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하며 놀라워 할 뿐이었습니다.

2년 전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된 김영애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부부가 같이 101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교회에 다니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짧게 쪽집게 과외를 받듯이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세 아이들을 번갈아 보면서 부부가 같이 101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뜨거운 신앙심이 식어갈 무렵 저희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려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와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는 둘째 그리고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셋째를 돌보느라 아내는 힘이들어 하시모토시병이라는 갑상선 질환을 얻었고, 집안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아내는 201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201훈련이 시작될 때 아내는 적극적으로 201 훈련을 권장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아토피 치유 그리고 아내의 갑상선 질환 이 모든 문제를 가장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늦게 3주차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201 동기분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영적훈련을 하였습니다. 묵상훈련, 금식훈련, 기도훈련, 학습훈련, 단순성훈련, 홀로있기훈련, 복종훈련, 섬김훈련, 고백, 예배,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등을 하였습니다. 각 훈련들이 제 생활을 다듬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항상 기도로 시작해보자는 것을 통해 작은 일도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연습했습니다. 운전할 때, 자녀와 헤어질 때, 자기 전에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한 후에 등등.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통해 태산과 같이 크기만 했던 가정의 문제들이 하찮고 쉬운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매일 평범하게 보이던 통근길 운전 같은 것입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행복한 저녁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침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루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여년 전 장인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할 것은 유학가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달라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201 제자 훈련을 통해 감히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평소에 항상 영적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것은 큰 명예나 재산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책을 읽히거나 명령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없고 부부가 몸으로 실천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씨앗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할 것을 결심합니다.





## 마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201 훈련



제6여선교회  
한진영집사

201을 시작하던 첫날 마음가짐을 나누던 시간이 생각난다.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무슨 기대보다도 예일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해야하는 훈련이기에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팀의 한분 한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다.

나에게는 201훈련이 내 마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시간이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함몰 웅덩이에서 고백했던 것 처럼 지하실까지 파고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회복으로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놓고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사실 여러가지로 나는 지쳐있었다. 계속되는 생활고 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런 재혼과 아이들의 적응과정 그리고 어린 셋이로 인해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과 같았다. 이러던 중에 지난 수련회가 나에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잔치였다. 역시 아이를 봐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별로 기대감 없이 출발했는데, 아이가 울다가 지치면 그만 울꺼니까 마음놓고 은혜를 받으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위로삼아 미안했지만 우는 아이를 유치부에 놓아두고 이층 문을 열고 들어가 앉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첫날 저녁부터 내가 하던 방언과는 다른 방언으로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멈출 수도 없이 그 바닥을 뒹굴면서 다음날 새벽과 낮 예배까지 하게 하신 후 멈추어 주셨다. 사실 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또한 생활에서 변화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진 201훈련을 통해 마음과 생활의 정원을 정리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마도 수련회를 통해 회복하게 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느슨해질까 염려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더이상 방황하거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지속하게 하시고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하심이 감사하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믿음의 습관들(꼭지기도, 일기기도, 말씀카드, 시간기도등)을 다시 찾게하셨고, 거의 매과 때마다 주신 말과 혀를 제어하는 믿음이 생활 중에서 나타나야 한다- 는 도전을 주셔서 올해 나의 표어가 되게 하셨음이 감사하다. 또 한가지는 목사님께서 때마다 말씀하셨을 때 나는 대화를 한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곤 했다. 평소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도 그렇고 나는 목사님이 참 어렵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모태신앙인으로 겪는 믿음생활이나 때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 훈련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셨을 때 듣기만 했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시원함으로 인도하심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이다.

나는 믿음생활을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나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가끔 “한 계단 올라왔네요..” 하고 고백하며 울 때가 많다. 이 201 훈련이 또 한 계단 올라가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 더 내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겸손해지고 변화하면서 믿음생활에서 덕이 되는 하나님의 멋진 딸이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 깊이 있는 사람



청년부  
김보연자매

작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그 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201제자훈련 신청서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선뜻 신청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결국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첫 수업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첫 수업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자훈련의 도입단계로 훈련의 주제인 “영적훈련”에 대하여 배우고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시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 변화받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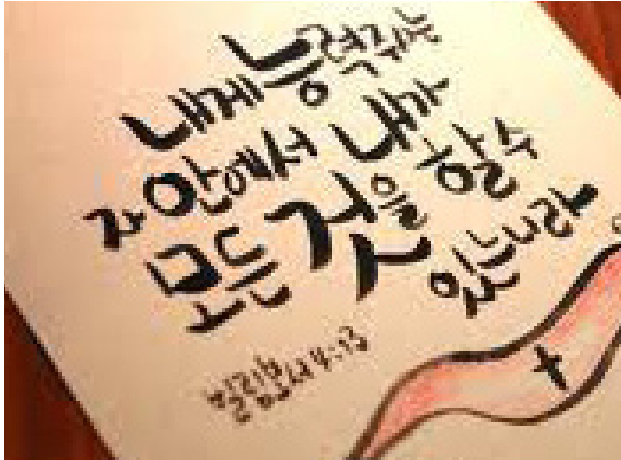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은 제 생활 속에서 좀 더 나를 바쁘게도 하고 숙제로 인하여 허둥지둥 할 때도 있었지만 매번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 대하여 좀 더 알게 되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제 하루하루 생활에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했다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소하지만 제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생활속작은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 도중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가족들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 걱정도 많았지만 매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훈련 중에 고백의 훈련을 공부할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 속 집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 전 더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사람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내 마음 속 주인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 부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분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요즘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처음에 소망했던 “깊이 있는 사람”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순간 귀한 말씀으로 좋은 분들과 나누며 함께한 이 시간들 제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DT Reflection*

E.M  
Gina Kwon

My experience in the Disciple Training class was certainly one that was unique and unexpected. I first was obligated to join the class in order to be qualified to go on the missions trip to Bolivia. In the first few sessions, I dreaded having to spend two hours every Wednesday just to learn about material that I thought I already knew. Reading the bible chapters and completing the homework was tedious for my already packed schedule. It was training about God, so how hard could it be? Then as the sessions started to progress, I realized that it wasn't just a class that should be forced to attend. Learning about God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he sessions started to move along quicker and I no longer wanted to come to DT with a wrong mindset. I completely changed my attitude about DT. I first came like it was a requirement, but as the weeks went by I slowly wanted to come to learn about God. I realized that God does an unbelievable amount of things for me, so I couldn't dedicate just two measly hours of my week to train to be His

soldier? DT was meant to benefit me rather than hurt me. There were things I learned that I would have never known or imagined before. When I entered DT, I was like a soldier entering the battle front with no weapons. However, with my newfound knowledge, I am able to successfully enter the battle equipped. Obviously, there is still an endless amount of things to learn about Him. But DT made me realize that I need to sacrifice more of my time to God instead of being selfish. I will no longer push Him aside. I will apply the information I learned in DT to my everyday life and really try to alter my life.

# 사건으로 보는 예일의 한 해

















## 출애굽 여정과 기록한 땅



제2남선교회  
한기하장로

2월 10일 저녁 긴급뉴스! “이집트 캐더린 수녀원 근처 여행중이던 가이드 포함 한국인 여행객 3명을 납치한 베두인과 경찰이 협상 중이다” 어머! 우리가 지난 주에 지나온 코스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세번째 예일교회 성지순례단. 출애굽으로부터

요르단 광야를 거쳐 젓과 꿀이 흐르는 기록한 땅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며 은혜를 받자고 출발한 성지순례였다. 되돌아보니 햇수로 3년을 계획했다. 2010년 말경 제2여선교회 회원 몇명에서 추진하여 인원을 모집하고 매달 저축을 하며 티켓을 예약하고 22명으로 결정되었다. 떠나기 한달 전부터 나의 마음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집트 정세가 불안하다! 이스라엘이 위협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받으며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관광회사에서는 여행객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버스와 기사와 가이드도 우리와 함께 가는데 잘못되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위험한 곳을 보내겠는가? 이것이 나의 견해도 대답이었다. 그러나 여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돌출사고가 날 수도 있다. 22명이 10일간 3개국을 순방하는 코스다. 나도 걱정이 되어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현지회사에서 그런 정보가 있는 지역은 관광을 아니하고 국가에서도 군과 경찰이 외국 관광객을 보호해주고있다는 답장이다. 안심이 되면서도 나는 팀장이라는 책임때문에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지순례의 목적은 성지를 밟으며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며 은혜받는데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첫째 안전, 둘째 건강, 셋째 은혜받기로 순서를

정하고 기도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1월 23일 JFK공항을 떠나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녁을 먹고 참을 자려하는데 약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권사님 한 분이 불편하시다하여 비행기 뒷좌석에 가보니 수건을 깔고 누워계시는데 식사한 것이 제한 모습이었다. 약을 먹고도 회복되지 않자 비행기에서는 방송으로 의사를 찾고 승객중 외국인 여의사가 와서 진찰하고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팀들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담임목사님과 운승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는 권사님 곁을 지키며 파리에 도착하니 점점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행기를 바꿔타고 카이로에 도착하여 순례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나일강을 건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를 보며 그 웅장함에 감탄했다.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것을 불신자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 250만개의 화장암(돌 한 개의 무게가 2.5톤 10)으로 무덤을 만들었으니 우매함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불쌍한 생각이 든다. 홍해 앞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일찍 자고 새벽 2시 시내산(해발 2700M)을 향해 자동차로 달려 모세가 본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기념하여 세워진 캐더린 수녀원(해발 1500M)까지 와서 그곳에서부터는 한 손에 지팡이 다른 한 손에 전등을 들고 내 앞길만 비치며 등정하는데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자갈길을 낙타도 지나가고 위험도 하니 정신을 차리고 걸어야 했다. 시간을 맞추어서 올라가야 일출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팀은 낙타가 위험하다 하여 모두 도보로 가면서



약한 분은 도와주고 부축하며  
 가다 결국 2명이 낙타를 타고 올라  
 갔다. 제2예정지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700계단을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쉼터에서 3  
 명이 기다리기로 했다. 나의 체력도  
 힘들어 3명을 보호한다고 남을까  
 하다 팀장이라는 책임때문에  
 등정하기로 했다. 내가 다른  
 팀원들과 아내까지도 돌볼 수 없는  
 체력이 되어 힘들어 하자 아내가  
 정수영 장로님에게 나를 부탁했다.

끓다고는 해도 모두 힘들고  
 자기 부인을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정장로님은 나의 한 팔을 끼고 10

계단 오르고 쉬고 다시 10계단을 오르고를 반복하며  
 올라가는데 육신과 정신이 혼미하여 다른 팀이 앞에  
 가는지 뒤에 오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길 옆에 누워  
 자고 싶은 마음 뿐이다. 계속 줄려오기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700계단을 올라오니  
 텐트가 있어 들어가니 그곳이 매점이며 쉼터였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못듣고 벽에  
 기대어 쉬고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컵라면을 주어 먹고  
 나니 힘이 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일출을 보며  
 내려오는 코스는 순탄하게 팀원을 살피며 내려오는데  
 햇살에 비치는 절경과 암벽 웅장한 자태와 색채를  
 보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해준 신비감은  
 평생을 못잊을 성산이다. 너무나도 시내산의 정보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도전한 힘든 코스였다.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고 올라갈 때는 낙타를 타고 시작했으면  
 그렇게 힘든 코스가 아니었는데 10명에게는 정말  
 무리였다.

이집트를 떠나 요르단에 입국하여 에돔의 도시  
 페트라(요르단 국보1호)의 신비함과 천연적 요새에서  
 오바다에게 언급한 교만한 에돔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왕의 대로를 달리며 광야의 황무함과 광활함에  
 아연할 수 밖에 없었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지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넓은 옥토에 르우벤 지파들이 머무르는  
 사연! 느보산에 올라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내려다 보면서 숨을 거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다. 아득히 사해를 건너 보이는  
 이스라엘의 땅을 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여리고를 지나 콤란동굴을 보고  
 사해에서 머드팩을 하고 수영을 하며 신기한 사해의  
 뜨는 몸을 체험했다.

이스라엘을 호텔도 고급이고 식사도 좋아서  
 여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예배를 드리는데 가이드가 원하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하여 우리들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미국국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며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음성이 생생한 듯하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베드로 고기로 식사를 하는데  
 넓은 식당에는 한국에서 성지순례온 많은 팀들이  
 꽂차서 만원을 이룬다.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혼인잔치 기념교회에서 1월 31일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일과 일치하여 혼인갱신예식을





담임목사님 주례로 더욱 뜻 깊은 예배가 되었다. 40주년 기념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웨딩마치에 맞추어 입장하고 서약하고 기념목걸이를 걸어주고 키스하고 축도받으며 구속자 권사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울음바다였다.

나사렛, 갈멜산 기도원, 가이사라를 지나 기드온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바라보고 감람산, 주기도문 교회, 골고다 십자가의 길 14곳 처소를 십자가를 번갈아 지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비를 맞으며 체험하고 통곡의 벽,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통곡교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옹바항구까지 그때그때 찬양을 불러 순례객들의 박수와 앵콜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지순례였다.

예루살렘성지는 가는 곳마다 세계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모리아산의 회교사원은 황금색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슴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순례단 22명이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코스마다 눈으로 인원을 점검해야하고 그때그때 결정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차가 출발할 때마다 항상 안전과 인원점검이 머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찍고 하다보면 앞과 뒤가 100M 이상 멀어질 때도 있어 호루라기로 불러 수습해도 통제가 잘 안될 때도 있다. 3개국 국경을 지날 때마다 M16 총을 든 군인들이 검문을 하니 지은 죄도 없이 불안하기만 하다.

출발하기 전 22명에게 각각 책임분담을 주었다. 맡겨진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도 불평이 없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예일교회에서 배운 훈련과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라 생각하며 팀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텔아비브를 출발 JFK 공항에 도착하니 마중나온 교우들을 보며 반가움과 동시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 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젊어서부터 여행을 즐겨해 친목회나 교회에서 여러번 관광팀을 인도해 친교의 교제를 경험해보았다. 국가별로 12개국을 다녀보았으나 이번 성지순례코스는 은혜가 충만하고 책임도 막중하며 평생에 한 번은 꼭 다녀오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귀한 성지순례코스다. 이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 성지순례를 통한 신앙적 각오



제3남선교회  
정건수집사

시내산은 해발 2,285m 이고 Peninsular of Sinai (시나이반도) 신광야 안에 호렙산 맨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붉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가장 높은산 조상 모세가 여호와로 부터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진실하심을 체험하려는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성지이기도 하다. 옛적부터 이집트의 영토였고 배두인들이 거주하고,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를 있는 시나이반도에 위치하므로 Mountain of Sinai ( 시내산: 한국식표기) 라 칭하였다. 이곳은 척박한 사막성 기후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길들이기로 사용한 적격지였기도 하지만, 지금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기름이 매장 되어있어 여러 우방국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이기도하다.

예일의 순례객들은 카이로에서 2박을 하고 시나이 반도로 이동 하는데 우리를 태운 버스는 수에즈운하의 지하차도를 미끄러지듯 달려 잠시 1분후에 운하를 빠져나와 척박한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한다. 예일 순례객의 버스는 출애굽시 이스라엘민족의 처음 집결지인 숙곳을 지나 시나이 광야의 한낮 정열을 가르며 광활한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질주해 나아간다 마라의 쓴 우물을 향하여!!

예순단 (예일순례단원 들의 준말)들은 마라에 도착하기15분전에 버스에서 내려 이스라엘민족이 겪었던광야생활를 체험하기 위해 광야를 걷기 시작한다. 엉덩퀴, 돌짜발, 불땀, 전갈이 많으며 물이 없는 광야!! 낮에는

메마르고 더워서 여호와와 구름기둥이 없으면 행진할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 곳,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러나 불평 불만 하였던 그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계속 우물을 향하여 우리대원들은 견고있다. 광야체험이 끝나고 예순단들은 마라의 쓴 우물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출애굽기 15 장22절~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하신다. “광야는 내 속에 쓴 물을 보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하심으로 단물로 바뀌지는 내 인생을 보는 것 이라고” 이 주옥같은 설교는 은혜로웠고 마라우물 곁에 앉아 듣는 설교이기에 생동감이 있었다. 마라는 ‘쓰다’ 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 원망을 가라앉치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나물을 가리켜서 이것을 던졌더니 단물이되었다. 목사님도 한나무 가지를 우물에 던지셨다, 쓴물이 단물되라고... 은혜로운 광야 예배였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땅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신다, 그러나 가운데 수르광야와 바란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숨이 꺾꺾 막히는 사막, 불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위험한 곳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지만 혹독한 40년의 훈련은 철없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불평 불만을 못하게 만드셨다. 즉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순종해야 함은 우리의 책무인 것이다. 필자에게 “나만 은혜받지 말고 이 귀하고 보배로운 교훈을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젊은 예일의 후배들에게 유전하고 또 순종 하라고 가르치고 싶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다.

예순단의 버스는 마라를 떠나 시나이 반도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휴양도시 누에바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었다. 저녁노을이 지는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가르 바다를 체험하며, 조개껍질을 주우며 아카바만에 저녁노을을 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 꼬리를 치며 대화에 응하는 열대어는 우리를 환영하듯 천진난만해 보였다.

저녁식사후 일찍 잠자리에 들어 새벽 12시 30분에 기상벨이 울렸다. 시나이반도의 밤은 무척 깜깜하였다. 예순단버스는 고요하고적막한광야의어두움을 가르며 돌썩발 사이로 그 척박한 광야를 질주해간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산 시내산을 향하여!! 약 2시간후에 성케더린 수녀원 (Saint Catherine abbey)에 도착하였다. 버스에서 내려보니 칠흙같은 어두움이 앞을 가리고 고요와 적막속에 비취는 영롱한 시나이의 하늘은 습기가 없는

하늘이라 너무 또렷이 맑고 가깝게 보였다.

우리는 4개조로 나누어 권사님들은 앞으로 청년들은 뒤로하여 잠시 기도를 마치고 “예일!! 예일!! “구호를 외치며 시내산 꼭대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산행을 시작했다. 대원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 “으 으 ” 하며 그곳 정상을 향하여 가는데!! 10분쯤후에 기골이 장대한 배두인이 낙타와 함께 나타나 “낙타 30불, 낙타30불” 이라고 한국말로 외쳐댄다. 우리 앞에는 유럽에서 온 순례객 들이 가고있고 뒤에는 대구에서 온 캐도릭 신학생(사제단)들이 바짝 따라 붙는다..

예순객 들은 처음 부터 낙타를 안타기로 결심하고 서로 전등으로 앞뒤를 비취며 계속 전진해 나아갔다. 중턱쯤 에서 권미자 권사님과 이유화 권사님 두분이 죽으면 죽었지 더이상 등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더 산행을 하라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게 낫겠다고 하신다. 얼마나 숨이차고 허리 다리가 아팠으면 이런 말 씀을 하실까? 제가보니 더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두분은 낙타를 타도록 하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처음부터 타지 아니하였는지 후회하신다.





그때 필자는 좌우 양 옆쪽을 비춰보니 어떤 곳은 경사가 심한 곳도 있고 낭떨어진 곳도 있으며, 평지도 있었는데 워낙 어두워서 후레쉬 라인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위험한 산행이었다. 약 2시간 등반 후에 2/3 지점까지 올라왔다, 우리 예순단들은 조금쉬기로 하였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캄캄한 야밤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진짜 여호와와 인도하심과 앞서 행하심이 도우신 것이다. 심한 돌풍과 함께 골짜기로 내리치는 한랭한 시나이의 바람은 몸속 깊숙히 강렬하게 침투해 오기 시작한다. 몹시 시리고 아프며 몸을 파고 드는 돌풍은 마침내 어깨와 허리까지 “오싹 오싹” 전율을 느끼게 한다. 아마 바람은 약시속 50마일 영하 15도 추위인 것 같았다. 필자는 이때 운동주의 시중에 삭풍이 생각난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바람은 눈설에 찬데” 그러나 바람은 내 몸속에 차다. 훗바지를 입고간 나는 무릎이 너무 시려 참을 수가 없었다. 속내의를 입고 올걸 하고 여러번 후회하였다.

중턱에서 약 1시간 더 올라오니 낙타스테이션(낙타집결지)이 있다. 지금부터는 낙타가 더이상 갈수 없는 경사가 가파른 깎아세운 바윗길이 시작되고 정상상을 향하여 750계단을 더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번 쉬기로하고 약 100계단 정도 전진 하였을때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시내산 일출을 봐야 하는데 일출을 놓칠 것 같아 애간장이 탄다. 약 3~40 분후 300계단을 더 오른후에 드디어 정상 50미터 전 싸롱들이 있는 평지까지 마지막 등반에 성공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배두인들이 운영하는 싸롱(약 30명 정도 앉을수 있는 구멍가게)에 들러 잠시 추위를 피하고 좀더 정신을 차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시내산 정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실로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 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예배가 끝난후 대원들은 정상에 올랐고 시내산의 일출이 시작되는 장관을 볼수 있었다, 대원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시 싸롱에 내려와 보니 배두인 가게주인이 “더운물 2볼, 더운물 2볼” 라고 소리 지른다. 비싼 더운물로 김치 사발면을 먹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 먹어 본다. 뜨거운 라면을 먹고 난후에 속이좀 풀어지는것 같았고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것 같아 살것 같았다. 정상 등반은 끝이 났고 하산하며 시내산을 바라본다.

시내산 등반을 마치고 필자는 요점을 간단히 정리 해 보려고한다: 1) 광야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하나님을 의지하지않고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는 곳이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이 큰 믿음이었다.

3)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임을 느꼈다.

4)시나이반도 수르광야 바란광야 신평야 시내산은 전체가 돌산이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그들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

5)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에서도 가능케 하셨다.

6) 내 발로 하나님의 성산을 밟았다는데 큰의미가





있다.

태양빛에 반사되어 굵이 굵이 붉은 화강암 자락에 비취는 영롱한 산 줄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산 같았고,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순례객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산이었다. 정상에는 Greek 정교회에서 모세기념교회를 지어 놓았는데 모세를 상징하기 위한 건물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머무는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은 금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조각하고,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우리 신이라 하여 우상에게 제단을 쌓았던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 32장 4절에서 6절까지)나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신앙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십계명 돌판과 금송아지, 하나님 우편과 좌편, 순종함과 불순종함, 양 과 염소 그리고 겸손과 교만이다. 이 둘중에 어느쪽에 설 것인가는 나의 자신이 선택 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순종과, 아래에서는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 잘 배웠다. 그리고 모세가

첫번째 돌판을 던져 깨트릴때와 두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에 잘 간직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시내산의 화강암처럼 단단해졌다.

그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쉽게 흔들리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건축물 안에 있는자들은 믿음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넘쳐 흐른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과사가 분명하며 내 자신을 절약하고 서로 주 안에서 아가패적인 사랑을 하며 성령이 충만하다.

어둠속에 거 하는자들은 멸망 받으나, 이것을 깨닫아 빛가운데로 다니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필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족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존이 강한 죄인이었다.

어릴적 부터 내 조상으로 부터 배운것은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국가와 내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좌우명처럼 여겼다. 내형제와 사촌형제자매들은 어떤 실망스런 죄를 범하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매도 많이 맞고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다 하여 쫓겨 나기도 여러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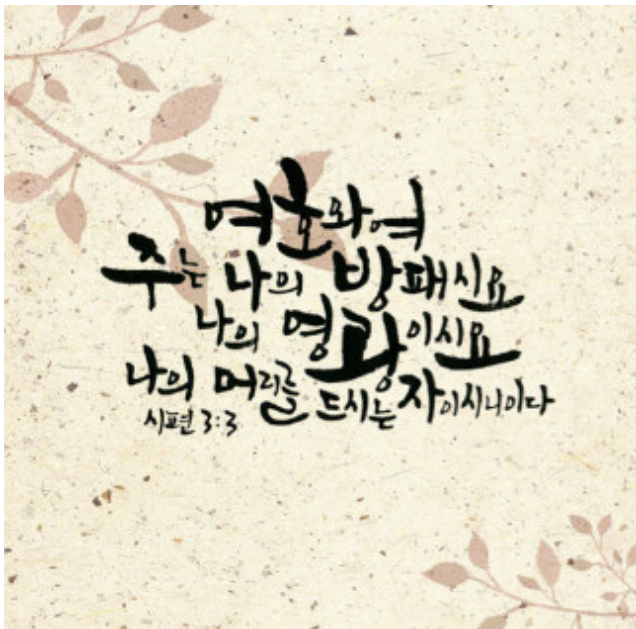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국가관이 뚜렷하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해를 많이 봐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쪽이 항상 마음이 편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비겁하고 불의한 것과 사나이로써 남자답지 못함을 보면 참지 못하며 그러한자들은 친구로 하지 않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강직하고 허물많은 사람이었다. 나보다 나이 많은자들도 나무랬다 “

형 그런것하면 나하고는 끝장이다” 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과 주먹질을 많이 하였다. 또 싸움을 하면 지면 안되기 때문에 태권도를 연마 하였고 군대 생활 시절에는 월남전에 참여하여 거의 죽을 고비를 세번 넘기기도 하였다. 또 쌀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자를 보면 쌀을 잔뜩 퍼다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내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유년기 때부터 배운 재산이기에 어떻게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피끓는 청년기에 조국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유신정권과 싸우다 피해를 많이 보았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류를 진실로 회개 하였다. 내 말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 받은자가 있다면 이 기행문을 통하여 용서를 빈다. 나는 결단한다. 내 앞길에 신앙적 장애 요소가 있다면 싹트기전에 잘라버릴 것이다. 결단은 현재 신앙적 초라함을 미래의 승리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예일제단에 속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반열에 서기를 하나님앞에 소망해본다. 필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한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 하였기 때문에 “많은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죄인 용서 해달라고 한없이 울고 말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가 남의 죄를 위하여 내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죽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고귀한 주님의 희생앞에 필자는 거꾸러지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번 성지순례를 마치고 내 신앙적 실수와 내자신을 의지하는 구습과 더욱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



## 아버지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



제2여성교회  
구속자권사

2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 2여성교회 등산팀이 매주 한번씩은 산에 갔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 바다를 보며 또 나무와 풀꽃들로 인하여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우리 등산팀들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때로는 성경말씀도 외우며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 하는 말이었다. 모두들 좋아서 마음들이 부풀어 올랐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월 조금씩 저축하여서 일년후에 가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 먼저 인원을 모으고 비용을 매월 걷으며 큰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년이 지나가면서 여행사에서 날짜가 잡혀왔다.

날짜가 결정된 것을 보니 1월 23일 - 2월 2일 인테 결혼 40주년 되는 1월 30일을 이스라엘에서 맞게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다. 남편은 자꾸 결혼 40주년인데 무슨 선물 갖고 싶냐면서 나를 테스트한다. 나는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지만 단체로 하는 여행인데 조용히 있다가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우리 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찬양드리며 맛있는 다과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물어볼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달라하며 웃었다. 현금이 없는 남편은 돈은 당신이 있잖아 하면서 다른 것을 말해봐 하며 웃겼다.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벅찬 감격으로 성지순례가 시작되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눈물의 기도 없이는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던 성지순례였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 31일 아침 일찍 가나 혼인잔치기념교회에 가서 우리팀 22명 만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도 참으로 감사 감격하여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더욱더 깜짝 놀란 일은 예배가 끝나자 곧 우리 목사님께서 한기하 장로 부부의 결혼 40주년 기념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또 놀라고 울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린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의 두 아들의 결혼주례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부부도 목사님같은 분에게 주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만 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도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주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부부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부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결혼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한기하 장로 부부야 이제부터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 된 것 같이 너희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웨딩마치 음악이 나오는



순간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감사 감격의 눈물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결혼 40주년 기념일은 내 평생의 잊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다.

착한 가이드 청년은 케익을 사오고 운전하시는 아랍사람 기사님은 꽃다발을 준비했다가 축하한다며 안겨주었다. 너무 많은 사랑받은 이 죄인이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첫째는 최고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맘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이 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풀며 기도해주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제2여성교회  
김미라권사

설렘과 긴장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온 성지순례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여행과는 달리 성경의 역사속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여행은 흥분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김종훈 목사님의 인도하에 예일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의 지리와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숨쉬고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케이로에서 첫날을 보낸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돌아 본 후 야기예수 피난교회, 콕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보안상 임시로 문을 닫은 이집트 박물관은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호텔 수영장에서 가이드가 준비해온 한식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이로 도시 중심에 있는 이집트의 젓줄인 나일강을 지나 카이로를 출발하여 수에즈 운하 터널을 지나고 광야 길로 달려 마라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써서 마시자 못하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지를 샘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된 그 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민족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대추야자나무가 곳곳에 있고 햇빛을 가리우기에 적당한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버스를 탑승후 유리창으로 보이는 것은 가도가도 끝이 없는 광야 길, 하늘과 사막과 돌산이 전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막을 행군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 여정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버스는 광야길을 달렸습니다.

애굽의 불안정한 정치와 선거때문에 오아시스 르비딤을 가지 못하고 홍해의 휴양지 누에바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근 후 피로를 풀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 호텔을 나서 시내산 밑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추위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두 사람씩 짝이 되어 일렬로 시내산을 등정 할 땐 오로지 발등만 비추는 손 전등과 앞뒤로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숨소리만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디딜때엔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후 준비해 간 컵라면과 커피로 추위를 달랜 후 (그곳에는 베두인들이 천막을 치고 장소를 제공하며 뜨거운 물을 \$2씩 받음) 돌 계단을 80여개 더 올라 가서 모세기념교회에서 보는 일출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하산 할 때에는 이렇게 높은 산을 (2280 m) 올라 왔다는 뿌듯함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밝은 아침 시간이라서 시내산 풍경도 볼 수 있었고 돌산에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도 보았습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떨기나무가 있는 캐더린수도원을 사진에 담고 기쁜 마음으로 하산 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누에바로 가는 광야 길 어둠속에서 시내산을 갈 땐 보이자 않던 싯딤나무 (성전 건축 재료와 언약궤를 만듦) 가 풀 한포기 없는 사막에서



유일한 나무였습니다. 성막에 쓰인 재료인 식담나무를 이렇게 준비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입을것, 먹을 것, 의식주를 걱정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집트 항구도시인 누에바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국경 타바를 통과 한 후 요르단 입국 후 페트라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에돔족속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바위도시인 페트라는 바위속에 구멍을 뚫고 수로를 만든 시크길 (협곡)을 따라 2시간 이상을 걷다보니 바위절벽을 깎아 만든 거대한 돌 건물이 나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페트라는 구약성경 오바다의 기록된 에돔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 한 책이 아니라 돌 하나 나무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자체 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왕의대로를 따라 버스는 에돔과 모압 경계지역인 세렛길 골짜기를 지나 모압평지를 지날 땐 짝이 난 밀밭이 한없이 보이는 평야에 모압여인 룯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 길을 걸어 베를레헴으로 가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과부인 며느리가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 고향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착한 마음씨로 인하여 다윗왕가의 혈통을 잇고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은 모압여인 룯을 생각하며 애뜻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나이반도에 끝없는 광야와 사막과는 달리 요르단평야는 평안해 보이고 밀밭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40년 광야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가족과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좋은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두 지파반이 모세에게 요구해서 배당받은 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왕의대로를 따라 버스는 달리고 비가 올 때에는 차량통행이 금지 된다는 험하고 가파른 모압과 암몬경계인 아르는 골짜기를 지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새벽예배를 호텔회의실에서 드린 후 모세가 숨을 거둔 느보산에 올라 멀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모세기념교회 마당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휘감은 뱀이 세워진 곳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인 알렌비를 통과 후 사해바다에 도착 했을 땐 날씨가 아주 따뜻했어요. 높은 염분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에서 몸이 물에 둥둥뜨는 즐거움과 이곳에서 클레오파트라도 즐겨했던 머드 맛사지 체험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사본이 발견된 쿵란으로 이동하여 2000여년전 쿵란의 동굴에서 유대인의 한교파인 에세네파 사람들이 성경사본을 필독하여 항아리에 숨겨놓은 것을 1947



년 배두인족 목동에 의해 발견된 이 귀중한 성경의 보물을 발견 한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예리고로 이동하여 삭개오의 뿔나무 (2000년이 되었다던 오랜 거목이었음), 엘리사의 샘 (불결한 물에 소금을 넣어 깨끗케된 샘물, 지금도 많은 물이 솟아나고 흐르고 있었음), 예수님께서 40 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시험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기념품 가게에서 샘플로 주는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체면도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요단강을 따라 2시간여로 갈릴리로 이동하여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바다에서의 선상예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훈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고 볼 수 계시다는 것을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속에 생명사랑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인 베드로고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고 아주 맛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기간 20개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신 가버나움으로 옮겨 베드로의 집에 세워진 베드로교회, 오병이어교회, 물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듯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베드로수위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팔복산에 들러 천장에 기록해 놓은 팔복교회에서는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찍혀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어 예정에 없던 이스라엘의 명소 다이아몬드 공장을 견학 한 후 (여자들의 호기심과 눈요기로 충분했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둘째날 새벽 호텔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호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침식사후 예수님의 공생애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 교회에서 한기하장로, 구속자권사 내외의 40주년 기념 혼인예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는 천사로 부터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것을 알려준 수태고지교회, 요셉기념교회를 거쳐 므깃도(아마겟돈) 이스라엘평야를 지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갈멜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헤롯왕이 만든 로마식 도시) 를 방문하여 원형극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동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축복의 비라 불리우는 늦은 비가 내리는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 준비해간 예쁜 노란색의 우비를 걸치고 한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교회, 예수님승천교회,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눈물교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겿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되는 기도를 드렸던 만국교회, 38년된 병자가 고침받은 베데스다 연못, 저희들이 밟았던 자체가 성전인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길 (바야돌르로사)입니다. 14곳의 처소로 되어있는 그 길을 각 처소마다 기념교회가 있고 또 골목골목은 서울 동대문시장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이 성스러운 곳을 유대인인지 모슬람인지를 몰라도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습 아팠지만 우리는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순서대로 서로 십자가를 나눠지며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 체험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장사꾼들은 야유를 하며 이상한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 놓았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야유를 당한 고통까지도 체험 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스러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양고기 갈비로 점심을먹은 후 예루살렘 다윗성을 둘러 모슬렘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이 성스러운 예루살렘에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하여 반목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시 통곡의 벽을 지나 마가의 다락방, 다윗왕의 가묘를 거쳐 대제사장 가야바 집터위에 세운 베드로 통곡교회에서 베드로가 어린 비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상을 보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날 가야바의 집 감옥에 갇힌 그 동굴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회상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지순례 마지막장소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탄생교회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라고 낮은 돌 입구인 겸손의 문을 들어서면 교회지하의 작은 동굴에 아기예수가 탄생하신 은으로 된 별모양의 장식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곳에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출애굽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예루살, 베들레헴,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닷가, 가나 혼인잔치, 요단강 세례터등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열흘동안 체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가슴 벅차고 은혜스러운 성지순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때 예일교회 찬양팀이 온 것 같다는 주위의 다른 순례객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어느 때는 유럽과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객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과 같이 눈물로 찬양도 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지리와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보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성경을 읽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Work Camp 2011

고등부  
Joy Park

I looked forward to this year's Group Workcamp even weeks before. Maybe it was the freedom from hagwon or the excitement of meeting new people. Whatever it was, my expectation was high, and I think what I earned was much greater.

Meeting my crew members and working on my project was fun but that wasn't the highlight of my experience this year. Majority of the days during workcamp were "cry nights", where we cry in our prayers. Usually those prayer nights occur during only once in workcamp, but this year it occurred quite frequently. I didn't cry during every one of those nights but I sure did reflect on the different themes of the day and have my quiet time of thinking about God. During my every day life, I admit that I don't think about God very often or pray to Him other than my usual meal prayers. So the opportunities that were given to me to just sit down and be apart from the rest of the world were just what I needed the most. On Thursday night, all workcampers spread throughout the gym and prayed or reflected by themselves or in groups. I sat alone and just prayed dearly to God which I haven't done for a long time. A part of my prayer was that He would answer my prayer and give me a sign that He is still there for me and that He hadn't let go of me even though my faith has been going downhill for a while. To my great surprise,

He sent me someone to tell me His answer. A complete stranger came to my side and comforted me. At first I thought it was one of our youth group members or an adult, but the way the arms were around me felt so strange and unusual. So I looked up and she told me that she knows that it's a bit weird that she's there, but that she felt that God wanted her to tell me that the problems and obstacles that I faced won't defeat me and that He was, is, and always will be there, watching over me. When I heard that, I didn't know how to respond. All I did was sit there, cry like a baby, and just thank her repeatedly. That night truly blessed me. And that was what made this year's workcamp very special for me. Not only did I have an amazing time with my youth group members and crew members, but my doubts of His love for me was completely gone.

This experience is what I would like for everyone in this world to go through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It probably won't be the same, but I just hope and pray that everyone would realize and believe that God is always there for them no matter what obstacles they face in their lives, and that He has plans for each and one of us so we don't have to feel hopeless or defeated. Instead we should look for signs that He is trying to show us and just trust in Him, the way my stranger told me that night.

# 감기의 증상과 관리



제2남선교회  
오현섭장로

감기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다. 그것은 호흡으로 인한 전염병인데 2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다. 대략 성인 감기의30%는 감기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난다. “cold” 라는 용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이전에 추운 날씨와 감기는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용해왔던 것이다. 비록

감기 바이러스에 대하여 이제 더 많이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환경과 날씨가 호흡 전염을 민감하게 증폭시켜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어린이들이 6-10번씩 감기에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대략 전체10억 건의 감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기의 발생률은 줄어들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감기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 감기의 증상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은 다음과 같다. 콧물, 충혈, 재채기, 목 가려움증, 빈번한 기침, 두통, 열 위의 증상들은 다른 바이러스 질병과 흡사하다. 즉 계절적인 감기. 감기는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대부분 충혈, 재채기, 그리고 빈번한 기침을 동반한다. 감기는 한기, 고열, 기침까지 겹치면 더 치명적이다.

## 감기의 예방

감기 바이러스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물기가 공기중에 떠 있다가 호흡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된다. 바이러스의 전이는 직접 흡입에 의하거나 입, 코, 또는 눈의 세포에 감염으로 이루어진다. 감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들이 추천되고 있다.

- \*손을 자주 씻을 것
- \*재채기할때 입을 가릴 것
- \*재채기 할 때 입을 손으로 막지말고 팔꿈치를

접어서 할 것

\*주로 쓰는 전화기나 문 손잡이를 소독 할 것

## 감기의 치료와 관리

현재 일반적으로 감기에는 치료법이 없다. 감기약은 다만 감기 증상을 경감시켜줄 뿐이다. 항생물질 처방전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하지만 박테리아 제거에는 도움이 된다.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감기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물을 충분히 마실 것
-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 공기를 습기있게 만들어주거나 충혈 제거를 위해서 염분을 코에 떨어뜨려줄 것
- 소금물로 양치질하여 목쭉심을 경감 시킬 것

독일 연구원들이 보여준 연구 결과를 보면 “ 감기에 걸리면 잘 먹어야 하고, 열이 나면 굶어야 한다.” 고 하는데 어느정도는 신빙성 있는 말이다.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은 우리 몸은 식이요법에 의해서 다른 면역을 산출해내고, 음식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박테리아와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면역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해서 큰 힘이 되고 있다. 보다 많은 증거 자료가 나올 때까지 아플 때는 꼭 균형있는 식사를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들은 비 처방전 약으로 Echinacea, Vitamin C와 Zinc (Zicam)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품들은 감기의 심한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아픈 기간을 줄여주는데 사용된다. 특별히 감기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추천되고 있다. 매년 감기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에게 매년 예방접종을 받도록 격려하고 있다.





감기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비 처방전 약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Decongestants (e.g., Sudafed)
- Cough suppressants (e.g., delysym, Robitussin DM)
- Antipyretics (e.g., Motrin, Advil, Tylenol 등)
- Expectorant (e.g., Robitussin)
- Antihistamines(e.g., chlorpheriramine, Brompheniramine 등)

### 의료기관을 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심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될 수 있고, 감기 전염 또한 다양하다. 의료 기관에 연락 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감기가 10일 이상 지속될 때
- 환자의 체온이 화씨 100.4 도 이상일 때
- 3개월 미만인 아기가 열이날 때
- 심한 통증이 있을 때
-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할 때

### 50세 이상 되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영양제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 한가지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는다. 연구 자료를 보면 비타민과 광물질의 결핍된 노인들이 거의 3분의 1이 된다고 되어있다. 여러가지 이유인즉 부족한 영양 섭취, 신체 결함, 씹는데 어려움, 합병증, 원활치 못한 교통수단과 낮은 수입으로 인하여 낮은 칼로리 섭취로 말미암아 영양 결핍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연세드신 분들은 여러가지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영양상태를 잘 점검해야 한다.

종합비타민 의약품들의 예를보면 Bayer제약회사의 경우 50세이상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종합비타민을 한알씩 복용하면 좋다고 되어있다. 2009 년 에 Wyeth 제약 회사에서는 Centrum Silver Ultra Women' s와 Centrum Silver Ultra Men' s 를 50세이상된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50세이상을 위한 영양제는 대량의 비타민 C, 빈혈특효제인 folic acid,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 1,2 6,12를 포함하고

있지만 철분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다. 어떤 연구자료를 보면 높은 철분 섭취는 암이나 심장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결론은 아직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억과 집중 증진을 위한 Centrum Silver Ultra 영양제는 치은염과 생리적 개체를 포함하고 있다.

2009년에 Nature' s Bounty 제약회사에서 소개한 종합비타민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45 세이상된 분들에게 특히 좋으며 수명을 훨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종합비타민/종합광물질은 39 가지의 서로다른 영양소, 즉 12 가지의 야채와 과일이 농축되어있고 노화방지제, 생식능력, 오메가-3, 지방산성을 포함하고 있다. 50세이상되신 분들을 위한 종합 비타민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가 여러가지로 연구되고있다.

50세이상되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종합비타민

\*One A Day Mens 50 Plus Advantage Tablets

\*One A Day Women' s 50 Plus Advantage Tablets

\*Centrum Silver Tablets (available in chewable form)

\*Centrum Silver Ultra Women' s Tablets

\*Centrum Silver Ultra Men' s Tablets

\*Bausch & Lomb OcuVite Adult 50+ Lutein & Omega-3 Formula, Eye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Soft G els

\*Nature Made Multi For Her 50+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 Tablets

\*Nature Made Multi For Him 50+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 Tablets

\*Nature Made Essential 50+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 Tablets \* Nature Bounty ABC 50 Plus Senior Tablets

\*Rainbow Light 50+ Mini Tab Multivitamin

\*Theragran M Premier 50 Plus High Potency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 with Lutein & Lycopene Caplets

## 성경은 생선먹듯 읽지마라



제1선교회  
김상성장로

지난 30여년간 목표를 몇번 수정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드려 읽어오던 성경통독을하나님의은혜 가운데 최근에 목표를 이루었다. 성경읽기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의 귀한 말씀을 성도들과 나눔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잡았다.

사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필요를 절감하게 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생활 중에 처음으로 맡았던 초등부 2학년 학생들이었다. 내가 50년대 초에 교회를 잠시 다녔다고 하나 교회가 집에서 4Km나 떨어져 있어 여름철에는 어른들이 농사일에 바빠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생이 다니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교회에 못가는 경우가 잦았고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동란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공산치하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게되는 비극도 있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50년도에 교회를 떠난 후 13년 만인 1963년 3월 첫 주일에 집 가까이 있는 송학대 장로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교회등록 4개월 만에 유년부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봉사하라는 목사님의 부탁이 있었었다. 13년간 교회를 다니지 못해서 성경은 문외한이었지만 찬송은 잊지 않고 잘하니까 초등부 2학년 교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 극구 사양했지만 주일학교 교사 교본이 잘 되어있어 학생들을 지도하기 전에 30분 만 읽어보면 능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를 맡기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공부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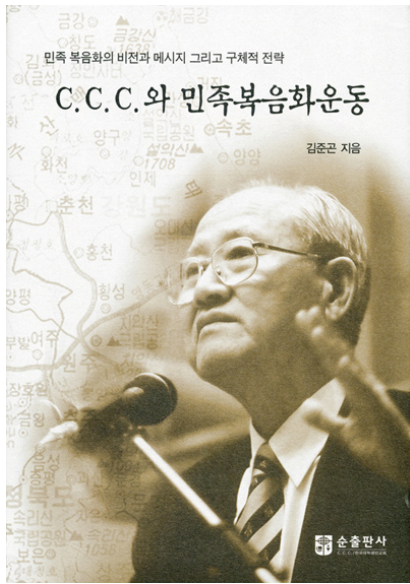
교사용 교본 내용에 머물지 않았다. 신 구약을 넘나들며 질문하는 것이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요나, 다니엘, 세레요한 등등. 많이 좌절도 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기도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학교공부 준비하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해 12월에 그간 대학입학때까지 징집을 연기해 놓은 징집영장이 나왔다. 이제 학업은 끝났구나하는 절망에 학년말 시험을 망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셨음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말씀에 매달릴 때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가 지루해 질 것 같아 줄이면 훈련소에서 하루종일 훈련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아침 기상시간보다 30분 전에 일어나 준비해간 신약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독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내무반장이 담배도 피지않고 피곤한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주일예배, 수요일예배에 나는 허락을 받아 나갈 수 있었고 10주만에 신약을 통독할 수 있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산에 있는 미8군 사령부에 배속해주시고 미군들에게 사랑을 받아 18개월 근무하면 한국군에 배속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던 부대에서 연장신정을 해서 제대할 때까지 미8군에서 근무하는 특전을 얻었다. 그때는 미8군에서 카투사로 근무하려면 막강한 배경이 있어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배경이냐고 자주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럴때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이였노라 대답하곤 했다.

또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한국의 C.C.C 창시자이신 김준곤 박사님이시다. 늦깎이 대학생이던 63년도에 당시에 퇴계로 2가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쓰던 C.C.C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며



시골 냇가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듯 조심스럽게 차례차례 더듬어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내가 성경읽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또 나의 성경다독에 영향을 주신 분은 서울 새문안교회 원로장로님이신 이인수 장로님이시다.

이 장로님은 이북이 고향이신 분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계시다가 군 창설 초기에 단기육사를 마치고 육군대령으로 5.16 군사혁명시 장도영 내각수반의 비서실장을 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찾아와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곳에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원충현 대령의 반혁명 사건에 동조자로 낙인찍혀 이북출신 고급장교들이 숙청될 때 이 장로님도 사형언도를 받아 독방에서 사형수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장도영 장군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근무하기를 바랐던 자기의 경솔을 뉘우치며 사람을 그리워하던 이야기며 또 성경을 삼입받아 매일 읽으며 주님을 찾은얘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용서의 마음을 되찾게 되니 하나님께서 사형을 무기로 또 무기에서 모범수로 감형되어 그리던 가족의 품과 기도해주신 성도들에게로 돌아오게 된 간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찾는 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 내려 주심을 깨닫게 되었다.

은혜를 받은 했는데 나중에는 정동에 큰 빌딩을 짓고 그곳에서 활발히 대학생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단계의 순장교육도 하시고 계셨다. 마침 내가 81년도에 그곳에서 가까운 서소문 지점 차장으로 발령이 나서 82년부터 3차에 걸쳐 순장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생선을 먹듯이 뼈를 일일히 바르며 먹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읽어가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풀어지는 부분이 많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한다고 하셨다.

성경을 50독 이상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암송되지도 않아 성경읽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고민중에 있을 때 총신대 원로 성경학 교수이신 박희천 교수께서 '성경해석학' 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3시간씩 4일간 특강하신 귀한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목사님께서서는 신약을 500독 이상을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계시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답은 그 주위에 있음으로



## 지상의 천국 천상의 부부



제1선교회  
김주상권사

“길을 떠나는 일은 낮선 바깥과 열린 마음으로 사귀는 일이다. 이 사귀는 통해서 생소했던 곳은 낮익은 풍경이 된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나그네는 길위에 선다. 그것은 바깥을 향한 나들이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내부를 향한 발걸음이다.” 라고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말했다.

설령 아는 곳을 찾아 나서는 일이라도 일상을 벗어나 옛 정을 짚어보고 묵은 회포를 풀어 자신을 순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주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나그네도 쉽사리 되어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홀로 된 그 해부터 신록이 깊어가는 오월만 되면 말로 담을 수 없는 허전함과 끈고함이 이 기차여행을 부추겼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서듯 허물없는 소꿉친구네서 이삼일 회포와 피로를 풀고 오곤 했었다.

이 풋풋한 오월에 또 다시 기차를 타고 나설 수 있었으니 감사와 설레임이 뒤엉켜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다. 허드슨강을 끼고 네 시간을 올라가는 이 고즈넉한 시간을 즐기며 10여년을 계속 했는데, 생명이 위태로웠던 교통사고 뒤론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했고, 또 다시 목골절로 인해서 5년만의 길 떠남이니 그리움은 사무쳐 허드슨강과 함께 마음의 되새김질로 이어지고 있었다.

잠이 덜 깨인 채 주위를 둘러봤다. 저녁인듯 어둑어둑하다. 브라인드가 내려져서일까 낮익은 내방이 아니다. 정신을 차리려니 말소리가 들려온다. 아, 어제 찾아온 친구집. 친구 내외가 이야기하는 소리구나. 오늘 아침 함께 교회 갔다 점심도 마치고 와서 나는 쉬려고 침실로 들어 왔지.

나는 일상에서 풀려난 이 오후 시간을 아무 생각 않고 그저 폭 쉬고 싶었다. 옛저녁엔 지나온 옛이야기, 애들 얘기, 이런 저런 일상사를 나누느라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속상하거나, 감동하거나 마음이 움직이면 아프거나 피곤해지는 습성이 있어 피곤했다. 친구에게 일요일 오후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니, 주일 오후는 늘 내외가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고 했다. 이 날 못하면 주중 내내 소소한 일때문에 마치고 힘들다고 한다. 나는 잘 됐다 싶어 잠깐 눈불이려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두런두런 성경구절을 읽는 내외의 목소리, 낮고 느린 음성. 꽤 꽤한 시간이 잠시 흐른다. 어둠이 내려앉은 이 적막속에 불 밝힌 식탁에 마주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도란도란 친구목소리. 이 아름다운 정경에 전율이 인다. 나는 주르르 눈물이 흐른다.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참상, 인고와 노력으로 점철되었나. 그 오랜 세월이 흘러흘러 다다른 지금, 인생을 다 살고난 승화된 노부부의 이미지가 참으로 눈물 겹다. 이제야 참 일심동체가 되어 저 세상을 준비하는 그 은혜로운 마음을 무엇에 비길꼬. 천상의 천사 부부가 이럴까. 누가 아름다운 천국이 이 곳에 있음을 나로 보게끔 이끌어 주셨는가.



6.25동란이 발발한 그 때 우리는 공산치하에서 숨어지냈다. 그 공포의 시간 속에서도 이웃한 친구네 골방이나, 우리집 다락방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며 꿈을 꾸었던 철부지 여고생들이었다. 친구의 부친은 함흥에서 남하하셔서 서북청년단 지역단체장을 하였고,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그들의 주목 대상이 된 집이었다. 오빠는 이미 전장으로 나갔고 부친은 시골로 떠나 숨어 지내셨다. 집안은 모친과 장녀인 친구, 동생 넷이 남았는데 인민군이 수시로 찾아와 수색하는 공포의 시간들을 용케도 견디고 있었다.



인민군 후퇴가 시작되었다. 두살박이 막내동생을 업은 채 모친은 인민군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수감되었다. 경찰서가 집에서 가까워 낮에는 동생들이 교대로 문 앞에서 모친을 기다리며 그들의 잔악상을 목도하고 있었다. 모친은 이들을 감방에서 꼭 들어찬 사람들과 함께 지새다가 어느 캄캄한 밤에 그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들은 업은 애를 번쩍 들어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밧줄에 한 줄로 묶어서 남산으로 끌고

올라갔다. 끌려가는 공포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귀청을 때려 모친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느 만큼 올라가니 숲 속에 큰 구덩이를 파 놓은 곳에 다달았다. 그 주위로 한 줄로 뺑 둘러서게 하고는 인민군은 총을 쏘기 시작했다. 모친도 총을 맞고 쓰러져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까지 기억하셨다.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 스프르 뜨이는 시야 속으로 흰하게 동이 트이는 하늘이 비쳐왔다. 그때서야 총살로 죽었다가 살아남을 실감하셨다고 한다.

움직이려니 옆구리가 찢어지듯 아파오고 끈적끈적하게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피 비린내가 코를 찔러 정신이 아득해졌다. 모친은 하체에 덮쳐있는 시체를 겨우 떠밀어내고 움직여서 그 위로 기어올라가 구덩이를 빠져나왔다. 일어서려니 걸어채인 왼발이 부러져서 디딜 수 없어 그 때부터 기어서 겨우 산을 내려왔다.

그때 퍼뜩 정신이 들기를 집으로 가면 또 들킬까 싶어 집보다 더 먼 곳의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문을 두들이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한편 친구 동생이 그 날도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보니 인적이랴곤 없어서 서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텅 비어있는 어느 방 안에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업고 왔다고 한다.

그 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왔다. 중공군 침투로 국군이 후퇴해서 서울에선 1.4후퇴가 시작되었다. 6.25때와는 달리 온 국민이 붓짐을 이고 지고 남으로 피란 길에 올랐다. 군인 가족은 열차로 트럭으로, 일반인은 걸어서 떠났으나 기차가 쉬어가면 피난민이 열차의 지붕까지 올라타고 며칠씩 지체하며

내려갔다.

1.4후퇴 할 때 모친은 총살로 부러진 다리가 낫지 않아 앉지도 걷지도 못했다. 들 것에 뉘어서 숨이불을 둘둘 말고, 열차와 열차의 연결고리 위에 동여매고 떠났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 눈보라치는 날에 노천에 매달려 갔으니 그 참혹함이란 말할 수 없었다. 국민이 다 겪는 피난생활이지만, 환자를 모신 대가족의 장녀의 생활고는 말 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

그런 모진 고생을 뚫고 여기까지 온 친구

그 뿐이라.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고 보았으며, 객지에서 연명하다 휴전으로 고향에 돌아온 친구네는 그 어엿한 이층집이 전쟁속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몸둘 곳이 없어졌다. 시그문 밖 공터에 방한칸 부엌 한칸의 하꼬방을 짓고 온 식구가 정착했다. 그런 중에도 의대에 들어간 친구는 책이 없어 얻어보며



학생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힘들게 의대를 졸업했다.

인턴을 하던 대학병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해방뒤 단신으로 월남해서 삼촌집에 기숙하였으나 일하면서 고학으로 대학을 나온 수재였다. 둘은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이미 부친은 돌아가셨고 네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를 만들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들에게도 두 딸이 생겨서 더욱 벅찬 나날이라 둘은 미국행을 결단하게 되었다.

처음 미국 병원에서도 인턴으로 시작했고 의사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먼저 미국 정신과 의사가 되었으나, 서울 친정집으로 송금하기는 턱없이 빠듯했다. 친구는 서울에서 산부인과 의사였으나 두 딸을 데리고 미국 산부인과 의사자격시험을 공부하기는 너무도 어려웠다. 의사가 되어야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영어 알파벳이 종이 위를 기어다니듯 아물거려 늘 어지럼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첫 시험에 낙방, 두번째도 실패. 딸들을 피해 전구를 끌어 크라짖에 넣고 들어가 문을 닫고 공부를 했으나 세번째도 실패했다. 너무도 낙담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정신과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짧은 정신과 공부에 네번째도 실패하여 좌절한 아내를 달래며 남편은 다시 도전시켰으나 다섯번째도 또 떨어지고 말았다. 이젠 정말 포기하려고 손을 놓았으나,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없다는 부담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님을 모셔왔다.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선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되었다. 어머님 오신 뒤 많이 공부하고 본 시험에도 또 낙방했다. 몸져 누운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어머님을 보니 다시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칠전팔기란 이 친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던가. 칠전팔기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





동생들 대학공부 시키고 모두 미국으로 초청해 왔다. 친구의 두 딸도 모두 의사, 변호사 등 출중하게 성장했다. 목사님 딸로 정직 순박하신 어머니는 93세로 수하시고 10년전에 곁게 천당으로 가셨다.

### 칠전팔기로 이룬 장한 친구

5년만에 찾아온 친구집은 화려하거나 번쩍거리지 않는 수수한 실버타운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다. 멋지고 넓은 저택과 달리 노인이 살기에 편하게 설계된 방 셋인 단독주택이었다. 주인방, 손님방, 서재, 그러나 넓은 리빙룸, 궁전과 맞바꾸지 않을 편안한 보금자리였다. 먼저 집에 있던 보기 좋은 가구들이 놓이니 “내 삶이 이만하면 넉넉하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안락한 환경이다.

타운 안쪽 중앙에 시니어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일류식당과 같은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매월 쿠폰이 나온다고 한다. 삼식을 매일 하면 모자랄 정도여서 미국인들은 돈을 더 내고 먹으나, 친구네는 남편이 한식을 좋아해서 주에 한번 정도 가기 때문에 많이 남는단다.

한국 친지들, 교회 식구들을 초대해서 몇번 대접하고, 틈 날 때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스낵을 사는 등 낭비하지 않으면, 두 주에 한번씩 와서 소제하는 아주머니에게 이삼일 정도의 식사는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탓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친구의 마음씨는 가히 천사와 같다.

발소리가 나고 공부 끝나는 기척이다. 나가보니

남편은 쉬러 방으로 들어 가셨고 친구는 날 기다리며 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냉장고 문에 손주들 사진이 도배하듯 붙어있다. 훌쩍 큰 녀석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각기 뽐내고 있다. 두 딸에서 일곱 손주가 나왔으니, 이만하면 미국에 깊은 뿌리를 내린 성공한 일생이 틀림없다. 다시금 친구를 찬찬히 훑어보게 되었다.

식탁에 앉으니 무심코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테이블 끝에 놓여있다. 흰 승용차 앞에 선 건장한 흑인 청년이



웃고 있다. 누구냐고 물으니 함께 일하던 간호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날라온 연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간호원과는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심성이 무척 착한데 가난하게 애들을 키우고 있어 일이 생길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도왔더니 정년퇴직한 지금도 소식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함께 일한지 몇년 뒤 둘이 약속하기를 한달에 얼마씩 줄터이니 이것은 쓰지 말고 정립해서 묶돈이 되거든 그때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한 약속의 결실이라며

친구는 환하게 웃었다. 간호원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폐차 되었는데 직장에 나갈 수 없던 차에 적립금을 열어보니 6천불이 되어 있더라.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지금 직장에 잘 나가고 있다는 감사편지와 사진이었다.

우리는 키 큰 할아버지시계만이 재각재각 지켜주는 고요 속에 함께 지낸 7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따뜻한 찻잔을 감싸 안았다. 요즘 남편의 건강은 어떠시냐고 나는 물었다. 파트타임으로 주에 삼일 병원에 나가실 정도지만, 돌아오면 힘들어서 한참 쉬어야 한다고. 병원갈 땐 유치원 학생처럼 점심도시락, 물, 셀폰, 차열쇠' 하고 하나하나 건네주며 챙겨야 한다고 한다. 요즘은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한다. “늙어도 일할 수 있고 보람되니 좋으실 수 밖에 없겠지” 했더니 그래서가 아니라 몇십년을 두고 수소문한 호주 선교사님을 요즘에야 찾았기 때문이란다. 남편이 의대 다닐 때 일해도 수입이 너무 적어서 책도 다 사서 볼 수 없고 힘들어서 낙담할 때 우연히 만난 호주선교사님이 도와주셨단다. 책뿐 아니라 귀국 후에도 본국에서 옷이며 신발이며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졸업을 못했을거라고 하셨단다.

조금 있던 동산을 두 딸에게 나눠주고 이곳 실버타운으로 왔는데, 얼마전 호주의 그 선교사님 아들에게서 아버님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하루는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기에 깜짝 놀라 물으니, 이북에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렇게 찾던 선교사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하고, 며칠을 고민고민 하던 남편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는 오만불을 호주에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나에게 간청했다. 나도 동의했더니 그걸 보내고 난 뒤에는 저렇게 기분좋아서

얼굴이 다 환해졌어. 좀 더 일해서 죽을 때를 대비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또 파트타임을 시작한거야.

맘소사.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저녁하러 갑시다” 라며 방에서 나오셨다. 우리는 현관 앞 크라깃에서 잠바 하나씩을 꺼내입고 아직도 흰한 밖으로 나왔다. 이곳은 뉴욕보다 북쪽이라 저녁때의 쌀쌀한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쳐갔다.

“요즘은 한국이 잘 살아서 참으로 좋아요.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젊은 의사가 있는데 고국 방문을 하게 되어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나의 대학 시절의 곤경을 아는지라 ‘모교를 방문하는 길에 가난해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 있거든 한명 소개해줘요 다달이 얼마씩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젊은 동료 말이 ‘선생님, 한국의 의대생은요 모두 부잣집 자제들이고요. 어려운 학생들은 여러



후원단체가 있어요. 선생님 주시는 금액은 엇다가 붙이지도 못해요.’ 우리는 함께 껄껄 웃었어요.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고요속에 아직도 전등이 들어오지 않은 납작한 주탁들이 숨죽이며 앉아있다.



인적 하나없는 이 길위를 우리 세 노인은 천천히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의무와 사랑을 다 한 흥가분한 몸 속의 맑은 피가 천천히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가며 신령한 편안함을 불어 넣어준다.

### 성령의 단비로 축복받은 우리들

길을 떠나는 일은 낯선 바깥과 열린 마음으로 사귀는 일이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나그네는 길 위에 선다라고 지금 읊었으나 그것은 전쟁없는 평화시에 범인이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산책이며 사치로울 수 있는 시간들이다. 전쟁을 겪을 때 그 세월들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해서 이런 여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렇게 읊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시간들이다.

육신이 늙어갈수록 눈길과 마음에 닿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감사해지는 것은 나의 길을 다 걸어온 끝에서 새로운 길 앞에서 있기 때문이리라. 저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또 다시 나그네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다.



## 시아머니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3여선교회  
차은경권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미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으신 나의 주”

2010년 11월, 폭우가 쏟아지던 수요일 오후,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붓는 장대비를 맞으며 김종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윤승진 목사님이 저희집을 찾아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신 시어머님께 세례를 베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0평생 가족밖에 다른 어느것도 모르고 사시던 어머님께서 마지막 여생을 작은아들께 위탁하시기로 결정하신 후, 어렵게 마음 문을 여신, 오랫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기도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예” 라고 대답하신 어머님은 목사님이 손을 머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어주시자 흐느끼며 세례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말,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숨가쁨으로 응급실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른 이상은 없고 건강하니 다시 집으로 가라는 처방밖에 없었고, 집에 돌아와 2-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응급실로 가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이나 자녀인 저희들도 어머니의 증상을 노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입원시켜놓고, 큰 아들은 회사일로 캐나다에, 작은 아들인 제 남편은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 LA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LA로 떠나는 주일 저녁, 병원에 계신 어머님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때, 어머님은 숨찬 증세가 심해서 한 마디 말도 하실수 없어 손짓으로만 ‘어서가라, 시험 잘 보라, 사랑한다’ 하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공항에 남편을 데려다 주고 다시 병원으로 갔을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안정제를 주사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중환자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면 다시 퇴원하시겠지.. 하고 생각 했는데...

가장 두렵고도 두려운 것은 과연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막상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사들의 판명을 받고 어머니를 호스피스 기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병실에 들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은 없어도 어머니의 귀는 열려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 날, 그 날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곧 천국에 가실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시면 나는 예수님 이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갈수 있으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시면, 한국에 살고 있는 세 딸들도 모두 예수 믿고 천국오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어머니, 저도 이곳에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어머니께서 흐느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2011년 6월 초부터 저는 인터넷 성경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갓피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찾은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열심히 성경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입원과 함께 일상생활의 리듬은 깨어졌지만 성경쓰기는 더욱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편부터 했는데 두어 달 사이에 구약의 뒷 부분이 다 쓰고 신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쯤인가는 시간이 날때 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밤 먹으면서도 한 줄씩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이것에 매달리고 있을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그렇게 성경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 그 날 아침, 저는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시아주버님 내외분이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뵙고, 저희 부부는 오후에 가는 일정이었기에 아침 시간에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저의 마음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불명시간동안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며 기도제목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주실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입원 이후, 목사님의 심방(그리고 보니 어머니 세례 주시는 날 쏟아진 폭우에 이어 병원으로 심방오신 날도 뉴욕역사상 처음으로 한 여름에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요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설교말씀, 또 새벽예배시간의 말씀으로 저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셨지만 저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Always!!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마태 24, 42)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든가요? 저의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 용서하시고 저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8월 10일 아침 저는 누가복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쓰면서 손가락은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눈은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허공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녀석이 이층으로 올라와서 무엇인가를 얘기했고 저는 아들이 아이를 옆에 앉히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뛰어 올라오더니 놀란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대!” 빨리 어머니한테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컴퓨터를 끄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채, 손가락으로만 치고 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 그렇게도 재촉하시면서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온 몸이 짜릿할 만큼, 아무 말도 할수 없을 만큼,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정확하고 완벽한 응답은 되지 못할겁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 나의 솔람미가 되시는



제2남선교회  
신동인집사

나의 삶을 이끌어준 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육신의 네 분은 어머니와 누이와 형수와 아내요 영적으로 네 분의 권사님이 육신의 네 분처럼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모본과 교훈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게 하여주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서른 댓살이나 되어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일년 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처음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잠자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말씀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내용과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편지만 같았습니다.

첫번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깊이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아예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외부와 연락도 끊고 집회에 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닷새의 사경회는 새벽에 한시간, 오전에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 그리고 밤에 한시간으로 정하여 졌고 주제는 유다서였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유다서의 일절을 가지고 첫째 시간을 꿈같이 보내었습니다. 두번째 시간에 목사님은 첫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번째 시간에는 첫째와 둘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요약하여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문제는 몇일이 되어서 시간 시간 마다 요약하여 주시는 말씀이 길어 지면서 저로서는 들었던 말씀을 열번도 넘게 반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서 저의 부족함과 조급함이 고개를 들게 되었지요. 이것은 너무나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거지요. 누구는 몇일을 꼬박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시간만 와서 들어도 지나온 것들을 전부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더 저를 안타깝게 하였던 것은 유다서 25절을 전부 끝내지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한시간중 절반도 더 많은 시간을 요약을 반복하여 주시었기 때문이었지요.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의 마음을 읽으신 권사님께서서 밤 기도 시간에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나있는 저에게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를 타이르며 훈계를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의 부족한 소견을 주께 회개하고 마지막 날 새벽에 밀렸던 은혜를 흠뻑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분과 가깝게 되면서 권사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께서는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내시다가 사변통에 납북을 당하셨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면서 열악한 전쟁의 와중에서 세 아이를 키우시면서 철야를 하시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낮에의 피로로 졸음이 올 때에는 물동이를 머리에 지시고 기도하셨다는 그분의 신앙의 자세 또 말씀이 너무나 그림고 간절하여 잠자리에 드실 때에는 머리맡에 꼭 성경을 놓고 주무시던가 손에 안고 주무셨답니다. 꿈에서라도 주께서 말씀을 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두번째 권사님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개척한 교회에는 아이들이 운신할 만큼의 터도 없어 옥상에 나무를 깔고 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침 일이 없어 시간의 여유가 있던 터이라 품꾼하나와 몇 일을 그 일에 매달리던 때에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일을 마치고 저를 잘 보신 그분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에 저를 써 주셔서 몇년을 함께 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분의 삶과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평북 선천에서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 위로 오빠 세분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만주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열댓살 나이에 옥바라지를 다니셨습니다. 위로 두 오빠는 옥에서 순교하시고 마지막 오빠 한분은 어머니의 한스런 간청으로 결국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 해방을 맞게 되어 그 가정은 죄책과 부끄러움으로 순교자의 집안이 오히려 부끄러운 가정이 되었고 교회에도 다니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에 권사님은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며

집안에서는 손 쓸 형편도 되지 못하여 죽을 시간만 기다렸답니다. 어느 주일,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고 싶어서, 시간을 기어서 교회에 당도하니, 이미 예배는 끝나고 문은 잠겨져 있던 중, 잡무를 정리하시던 목사님께서 알아보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 안아 강대상 밑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불같은 뜨거운 기운을 경험하시고 병은 낮게 되었고, 그 이후 평생에 병치레를 하여 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사변 통에도 인민군에게 냄비를 파셨다는 장사의 은사를 받으시어 손으로 하시는 일마다 재물이 따르게 하셨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시는 일이 없이 교회와 선한 일에 아낌이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면 눈을 붙이고 계시는 것 같다가도 깨서서는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세번째 권사님은 아내의 스승이시며 멘토가 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나무를 쪼개는 것같은 끈오신 성품에 깔끔하신 그 분은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마치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삶을 말씀히 정돈하시고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나오신다 합니다. 매사에 그러하시기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뵈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사시는 모습을 뵙습니다.

직장에서 굶은 일에 억울함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시지만 그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처지에 맞지 않게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지만 사람들의 꿈을 받으십니다. 커다란 널싱흠에서 일하실 때에 유대인인 주인과 언니 아우하면서 친자매 이상으로 친하던 권사님 매일 아침 만나서 서툰 영어와 한국말로 기도하여 주었고 그 분은 언니가 아우에게 하여 주는 것 처럼 기도를



받았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네번째 권사님은 위에 말씀드린 권사님들과는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권사님께서 공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순이 훨씬 넘은 연세에 아직도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며 열심히 일하십니다. 부군되시는 장로님은 일년에 절반 선교지에 가 계시기에 힘든 일도 많은 실 터인데 미국에 오셔서 자기 일들에 다 성공하셨고 보람된 일들을 위하여 일찌기 은퇴를 준비하시며 권사님은 자기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을 하시고 싶으셨답니다.

그러다가, 내 나이에 미술을 시작하느니 내 온 힘을 다하여 젊은 화가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단을 꾸미셨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있는 화가를 발굴하고 돕기 위하여 요즘도 무거운 서류들을 배낭에 메고 몇 군대의 전시장과 학교를 방문하십니다. 언제나 뵈을 때면 여전히 열 여섯 처녀 때 모습에 표정에 말씨가 시간과 세월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권사님 말씀은 늙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하시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 보다, 자기의 삶으로 예수를 알리신다 합니다. 소녀처럼 해맑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무거운 망치로 생각과 양심을 때리는 듯합니다. 이 네분이 저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것을 감사합니다. 육십이 되면 철이 들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여전히 철부지의 신앙을 내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분들이 저에게는 어머니같이 누이같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연인같이 정겹고 사랑스럽기만합니다. 영원한 나의 한나요, 미리암이요, 드보라요 술람미랍니다 .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들이 지났고, 어찌면 어떤 권사님은 소천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들의 못다

한 기도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되어 지기를 바라며 제 기도의 한 부분이 된 것같이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어 오늘도 철들지 않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분들의 그 음성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그 때에 뵈던 그분들 보다 더 희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분이 되어주며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잠시 잠깐 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는 모두 다 모일 터인데 나의 뒤에 있어야 할 디모테와 디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려 오신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한뼘 썸 남은 해를 아까워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



제6남선교회  
마승범집사

작년 7월 이곳 예일 교회에 발을 들인 후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믿음생활은 적잖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간 잊고 있었던 긍정의 힘과 마음의 평화를 다시 맛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믿음에 대해 무언가 적어 낸 다는 것이 주재님지 않을까 싶어 주저하기도 했습니다만 저처럼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일곱살 무렵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4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던 때라 다섯 식구가 이쪽저쪽으로 엇갈려 누워야 하는 작은 삭월셋방에 살던 시절, 어느날 집 위쪽 공터에 커다란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으리으리한 대형교회들이 즐비한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본다면야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생활공간이 손바닥만한 방 한칸이던 일곱살 소년에게 그 곳은 교회라기 보다는 거대한 궁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던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란적도 없는데 예배당 창문 밖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던 저를 환한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당시로는 흔치 않았던 긴 웨이브 퍼머를 하신데다 피부가 유난히 희어 그야말로 천사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많은 부분 그 선생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반을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은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었을 뿐인데 누구에겐가 관심받고 있다는 게 기뻐 저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부활절 예배시간에 늦어 교회 가기를 단념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저를 선생님이 어찌어찌 찾으시고는 손을 꼭 잡고 교회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못했던 터라 찢리는 것이 있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던 저에게 선생님은 진초록 셀로판지로 싸서 사탕처럼 끝을 말아 포장한 삶은 계란 한 개를 쥐어 주셨습니다. 아직 채 온기가 가지지 않았던 그 삶은 계란은 어린 제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계란껍질에 까만 매직으로 그려넣은 스마일은 예수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을 하던 안경 쓴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 분은 여름방학 수련회에 가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체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무섭기도 했고 잘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그럭저럭 별일 없이 넘어가던 차였는데 3학년 무렵 원치 않던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꼬박꼬박 헌금을 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헌금으로 돈을 받아서 과자를 사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아이들이 헌금통이 돌 때 민망함을 피하던 방법이 있었는데 마치 손에 동전을 든 것처럼 두 손을 뽀족하게 모아 헌금통에 집어 넣고는 안에 들어있는 동전을 짤그랑 소리가 나게 슬쩍 건드려 주고 빼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대부분 동전이어서 숙달된 친구들은 진짜 헌금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백원씩 꼭 헌금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헌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숙달된 친구들과 달리 저는 그 “빈손 동전 흔들기”에 익숙하지



못했고 현금통이 도착했을 때 제 어설픈 연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킁킁 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호랑이 선생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오시더니 현금시간에 장난이냐며 친구들 앞에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현금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금 안낼꺼면 뭐하러 교회 다녀!”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저 혼자 현금함을 흔들며 대던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만 걸려 혼난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찬바람을 내며 나가셨습니다. 화가 나고 창피스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저는 아주 작은 반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으로 말이지요. 저는 그동안 제법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한 주일 예배에 빠지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제 걱정을 하며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못이기는 척 어깨를 한번 으쓱해주고 다시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 주일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난 교회 친구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이번 주에는 꼭 다시 나오라고 얘기 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선가 나타나 이번 주에는 꼭 나오라고 얘기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 천사표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저를 찾아주시고 부활절 삶은 계란을 쥐어 주셨던 것처럼 그 선생님이 어디선가 저를 찾으시고는 손을 잡고 이번 주에는 함께 교회에 가지며 웃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주일이 지나고 또 한주일이 지났지만 제가 계획하고 믿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진한 반항의 역효과는 의외로 컸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진 교회에 다시 나가는 것은 처음 호기심으로 받을 들이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한 달 무렵이 지난 어느 주일, 어렵사리 교회 앞까지 갔지만 차마 예배당에 들어서지 못하고 창문너머로 선생님과 친구들 모습을 쳐다보다가 발길을 돌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느끼던 허전함이란 소중하게 품속에 감춰 두었던 보물을 도둑맞고 뺨까지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한 주일만 빠지려고 했는데. 꼭 한 주일만 빠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작년 7월 예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접하기 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될 계기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할 기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룡아일랜드 내 거주지를 알아보던 아내가 우리 교회 김영애 집사님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소개로 이재덕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고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거주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Syosset으로 거처를 정하고 입주 전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집사님은 호텔까지 찾아오셔서 목장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와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사실 약속은 며칠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낸던 적도 있었지만 막상 기회가 닿으니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된 씩씩한 기억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핑계로 방탕하게 지냈던 시간들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용기를 준 것은 어떤 신념이나 결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담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않더라도 한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들었습니다. ‘그럼 얼굴만 한번 비추고 오자’ 하는

생각으로 등 떠밀려 오게된 예일교회 첫 날, 교회의 단힌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그 어릴적 궁전같은 교회에 처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처럼 어찌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요. 친교실에 들어서자 처음 뵙는 분들 뿐인데도 오랜만에 만난 십년지기나 되는 양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환한 웃음들을 본지 오래였던것 같습니다. 그건..... 잊고 있었던 천사표 웨이브 퍼머 선생님의 미소인 듯도 했고, 상처가 되었던 호랑이 선생님과 무심했던 친구들이 보내는 화해의 손짓인 듯도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여러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스스로 창조주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에 겨워 교회를 찾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 보다는 저 처럼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이 닥쳐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든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든지 등의 현실적인 동기로 인해 교회를 찾게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기가 현실에 기인하다 보니 마음속에 품은 소망도 자연스럽게 현실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일테면, 교회 안다닐때도 먹고 살게는 해주셨는데 교회 다니고 성경읽고 기도하고 하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가족 어려운 일 모두 막아주시고 기쁜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겠지 라는 식입니다. 기복신앙이지요. 옳고 그름을 떠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보다 되레 더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짧은 미국학생들과 경쟁해야하는 학교 공부는 예상보다 고되었고 어려움이 계속 되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과제물이 있거나 시험이 다가오면 주일에 몇시간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인간관계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만 제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적지 않았고 학교 공부에 생활의 부담까지 더해져 벽찰때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 또한 낮은 환경에 적응하고 저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스트레스로 저기압일 때가 많아 별것도 아닌 일로 곧잘 티격태격 하기도 했습니다. 개구장이 두 아들 어깃장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이들이 언어와 분위기가 다른 이곳 초등학교, 유치원, 교회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생겨 고민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소 민감한 성격 탓에 별일 아닌 일에 신경을 곤두세워 피곤해 지는 것도 별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어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애써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면 애초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눈 앞에 닥친 어려움이 발등의 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니 모든 기도가 사람이 구하는 대로, 구하는 때에 응답 받을 수 없다, 믿고 간구하며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당장 목전에 있는 문제에





대한 위로로는 긴박함이 떨어져만 보였습니다. 종교가 모든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현실의 문제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종교에 왜 굳이 힘을 들이는가 하는 질문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럼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하나?’, ‘뭘 더 하면 좋은건가?’

남들은 하나님이 육성으로 해결책을 주신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해야 그렇게 되는걸까?

이리저리 답을 찾으려 해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해법도 방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일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새겨 듣는 것 여러가지 고민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끔 새벽제단에 나가 힘을 얻는 것, 잠자리에 들기전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말, 행동,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사,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라고 구하는 바 들으시고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장인 장모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과 인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사 우리 가족 늘 지켜주시고 주님 평강 안에 거하게 해주십사,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게 해주십사, 우리 부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십사, 또 믿음과 심령이 굳건히 자라게 해주십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속의 미움과 화가 조금 누그러지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다툼한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용기가 납니다.

남이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닮은 아이들, 내 소유물인양 이것저것 강제하려는 욕심이 수그러들고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각오가 듭니다. 수업시간에 계속

질문을 펴부어 대는 교수 생각에 넋덜머리가 났다가도 다시 책을 끌어안고 씨름할 힘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읊조릴 때 열등감이 밀려가고 자존감이 다가옵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큰 행복은 만사를 주께 맡긴 후에 얻게 될 마음의 평강임을 어렵듯이 이해하게 됩니다. 1년 남짓한 믿음 생활을 통해 현실의 바람을 조금 내려놓는 대신 마음 속의 작은 변화를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확신도 부족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본보기가 될 만큼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후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경건해 지겠지요. 그렇게 바라면서 살다보면 조금씩 좋아지겠지요.

여러 인연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마음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늦지 않게, 더구나 아내와 두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불러주셨으니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긍정하도록 이끄시며, 실패를 통해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자족이 곧 행복의 단초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볍고 부족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로 세워주시고 저도 누군가에게 환한 미소로 기억되는 고마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 내 생명의 뿌리



제6여성교회  
박민애집사

8월 27일 토요일

그 전날부터 뉴욕 일대는 허리케인 “아이린”이 온다고, GAS STATION 에도 사람이 줄을 지어 GAS 를 넣으려고 하고, 뉴욕을 빠져 나가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밀리기 시작했다.

나는 큰애와 단 둘이서 오붓한 여행을 하려고 며칠전 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뉴스나, 사람들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그냥 집에 있는게 나을거야.. 하는 생각으로 주말에 집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까지만해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집 동네에 허리케인이 오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마당에 있는 화분이며 의자들을 집어 넣고

생수도 여분으로 사다 놓고, 허리케인을 맞이했다.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뉴스에서 얘기한대로 새벽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비바람이 무섭도록 불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창문을 쳐다보며 별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러다, 무슨 소리가 나는듯하여 일어나 나가보니 이층 창문이 나뭇잎에 가려서 밖이 보이지 않는것이다. 이상하다, 보통때는 이 창문이 흰했는데.. 생각하며 밑에 내려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어머, 이게 웬일인가..

우리집 앞에 원래는 없었던 나무가 쓰러져있는게 아닌가. 순간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보니, 우리집 차도 건너편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있던 나무가 쓰러져있는것이였다.

그 이후부터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다 우리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집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우리집쪽으로 또 쓰러지는것은 아닐까..

우리가 집에 갇히는것은 아닐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제발 무사히 이 허리케인을 보내게 해 달라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허리케인도 그냥 지나게 해 주시고, 우리 집 옆에 있는 큰 나무도 제발 이 바람을 이길수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설치고 아침이 밝아왔다. 7시쯤에 경찰도 다녀가서, 앞으로 더 심해질 예정이니, 절대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 버렸다.

주일 아침이었지만, 교회를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늘 월례회인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할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 만 가지고, 내가 해야할 예비나 준비, 예방등도 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일수있을것 같지가 않다면 사고가 나는 일을 미리 피하는것도 지혜일것 같았다. 나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때가 있다. 무릇, 이번 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집에 있는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다시 그날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밤이 지나고, 바람은 아직도 세차게 불지만, 그래도 날이 밝아지니까 아, 이렇게 무사히 지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어쩐 우리집 현관문 딱 그 앞에 나무가 있었다. 겨우 겨우 나뭇잎을 밟고 나올수있을 정도로..



아침에 경찰도 TOWN 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인지, 바람이 잔잔해진 후에 TOWN 에서 나무를 치우러 나왔다. 우리집 앞에 있는 전기줄에 걸쳐서 나무가 쓰러졌지만, 우리집은 전기나 수도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큰 지게차가 와서 나무를 밀어서 차도 건너편 학교 운동장쪽으로 나무를 밀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박수도 쳐 가면서 구경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자기네는 새벽부터 전기가 끊겼다느니, 인터넷이나 전화가 안됐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집은 전기도 문제없고, 인터넷도 돼서, 이메일도 보내고 했었다고 하니까 나보고, 너희는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집도 멀쩡하고, 전기나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 정말 LUCKY 라고 하면서 LOTTO 를 사라고 하더라..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LOTTO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회사를 가는 출근길에 NORTHERN STATE PARKWAY 를 지나면서, 밤새 이 나무들은 괜찮았다.. 하는 생각에 유심히 바깥 풍경을 보게 되었다.

큰 나무들도 뿌리가 뽑힌것도 있고, 큰 가지가

부러져서 쓰러진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것들은 하나같이 나뭇잎이 말라있었다. 그저 하루밤이 지난것 뿐인데도, 뿌리에서 떨어진 것들은 그 생명을 잃고 말라 버리는것이였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다.. 아, 나도 내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성령님의 뿌리에서 떨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님 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비바람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안에 있게 해 주시고, 그 뿌리에서 꺾이지 않게 해 주심에 감사드렸다. 또한, 항상 믿음의 뿌리를 깊숙히 내려서 비바람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든든한 믿음의 나무가 될수있도록 내 말씀의 뿌리를 더욱 다져야 함을 다짐했다.

가느다랗고 약한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수있듯이 나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약한 가지도 힘을 얻어 큰 가지가 되듯이 나도 지금의 모습 보다는 더 큰 믿음의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동안 또 나태해진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좀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 청년들이여



제6남선교회  
이중서집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도전의 삶을 살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목장의  
목자 이중서 집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인생을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사는 삶만큼 고귀한 삶도 없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만큼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소중한 때에  
드리는 것이 더욱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때는 없지만, 특별히 청년기는 더욱 소중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10대와 20대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다면 30대와 40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젊음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 16-17)”

주님 안에서 꿈을 크게 갖고,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도전하면서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 가는 인생을 살아  
가길 바랍니다.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 7)”

저는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년기를 저의 훗날에 하나님의 원대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미국의 의사들보다 몇 배의  
크기의 꿈을 가지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 십  
배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구논문을 80여편 이상  
쓰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초청강의도 100여 번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역에 걸쳐 6천 여명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미국응급의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Emergency Medicine (AAEM))에서 3년 동안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소명을 주시어  
환태평양 학술대회(Pan-pacific Emergency Medicine  
Conference, PEMC)를 만들게 되었으며, 그 결실을  
맺어 드디어 2012년도에 서울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  
pemc2012.org](http://www.pemc2012.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의의 다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큰  
미래와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기의 황금 같은 시기를 세속의  
가볍거나 무의미한 만남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젊음의 시간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종서 드림.

##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며



제6남선교회  
심도현집사

드디어 사랑하는 어머니(전 안자 권사)가 미국으로 떠난 아들 식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2년전 아버지께서 所天하시기 한 달전에 뵙고 올 수 있었으나,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를 뵙는 것이 약 12년만인 것입니다. 더구나 막내 효경이는 정말 말로만 듣던 할머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음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어머니는 2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잘 해드리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역시 자식이라는 이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넉넉하지 못한 현실 앞에 이것 저것 궁급해 하시고, 먹고 싶어 하시고, 갖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아이 같은 요구에, 이것은 질 떨어지는 중국산이라서 안되고, 저것은 몸에 좋지 않은 불량 음식이라 안되고, 그것은 한국보다 너무 비싸서 안되고 ……

떠나시기 전, 어머니는 우리의 형편을 이미 느낌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낯선 곳에 와서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이만큼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니, 항상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면, 그 나머지의 복은 하나님께서 보우해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 드리고 난 후, 어머니가 머무셨던 자리들을 정리하는 중에 이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남겨 두신 이 기도는, 우리 가족의 마음에 깊은 사랑으로 남게 되었으며, 언제나 다시 오실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모두들 죄스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라시는 기도처럼

잘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다음은 ‘어머니의 기도’ 의 畵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미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고난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미귀한 가정을 보전하게 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미가정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보았기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미 가정을 지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미 귀한 가정의 바들과 매느리, 그리고 세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미 귀한 가정, 천대 만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 귀한 가정의 온가족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게 하시고 평생토록 서로 마귀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주님으로 부터 받은 귀한 달란트를 감절로 남게 드리는 부부가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앞길에 험통케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미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 가정 마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주님께 자랑스러운 가정 되기를 소원 합니다.

살마 계신 우리 주 메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창조과학 탐사를 마치고



제4여성교회  
곽정희집사

창조과학탐사는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이라기보다 아이들과 저에게 정말 성경의 창세기 역사가 기록된대로가 사실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 행하신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눈으로 보고 배우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자! 하는

부푼 마음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간 세도나는 라임스톤이라는 붉은 색의 토양때문에 온 산과 길이 온통 붉은 색이었습니다. 이럴수 있을까? 정말 신비로왔습니다. 둘째 셋째날로 이어진 그랜드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시온캐년에서 저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노아를 보았습니다. 거대함, 아기자기함, 남성적인 힘의 계곡의 아름다움, 홍수 이후 물이 빠지며 생긴 지층들과 화석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4)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가슴아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진 노아의 방주!!! 이 계곡들 위에 떠있던 이 세상 단 한 군데의 피난처이며 첫번째로 남은 자가 된 방주와 노아. 이 홍수는 창세기 둘째날 만들어진 궁창의 물이 온 지구에 쏟아진 것으로 6억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홍수 후에 물이 물러갔다는 성경말씀같이 엄청난 에너지로 지구 전체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 그 후의 빙하시대까지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해석이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 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결론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다른 이론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3일 동안 수없이 반복하여 들은 것이 있습니다. ‘IN OR OUT’ 노아의 방주 속에 있을것이나 아니면 저 밖의 무서운 홍수 가운데에 있을 것이나. 마지막날 모두 모여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I ll be inside” 하는 이 한마디에 전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항상 간절히 원하는 기도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에도 그 후에도 제 머리속에는 노아의 방주가 각인 되었습니다. 방주 안이 하나님의 품안이고 나도 노아처럼 이 시대의 남은자 (Remnant)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돌아오는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Grand Canyon trip

고등부  
Junwon Jang

The Grand Canyon trip for me was a great experience in not only just spending time with friends but also learning a lot more about God. When I first signed up for this trip, honestly speaking I was only looking forward to sightseeing and spending time with friends instead of wanting to learn.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trip, I would have to say the learning portion of the trip was one of my favorite parts of the schedule because I learned so much about life in God's view and I feel better equipped with knowledge as a Christian, and I'm not only saying this because Jdsn would probably want me too. This trip taught me ideas and concepts that gave actual evidences towards how the biblical history of life is correct over the scientific concept of life. I've learned how things such as the evolutionary theory which is what is widely accepted now in modern day as how history occurred is wrong by understanding how there is a gap in fossil records from physical evidence shown at the Grand Canyon through its rock structure and layers. It also shows how the biblical beginnings of how God created everything is true, and it also shows that Noah's flood actually occurred. Although we might learn these ideas at church through

hearing them, actually being able to see physical evidence at the Grand Canyon's helped me to accept them more fully and grasp the concepts of life more easily. Even though I'm a Christian and I did believe in the concept of creationism, which is the biblical point of history, I would have to say there were times when I wanted evidence that showed how it was true and this trip gave me those evidences. Now I feel that I have stronger faith in God through all these evidences I learned to back up the biblical view of history. Also besides just learning, the time we had to sightsee was incredible. Even if you slept through all the lectures, which I sort of did for some, the view you got to see at the Grand Canyons by itself would have made the trip worth it. The pictures you see of the Grand Canyons you see online don't even compare to actually seeing it in real life. Also like any other church trip, the time we had there was also great for spending time with friends and having good fellowship. Overall I just have to say the trip was great and don't miss your chance to sign up for this trip the next time it's available.



# Grand Canyon trip

**고등부  
Dan Hahn**

Returning from the Grand Canyon trip was exhausting yet the most influential trip that could ever happen in my life. This past week, it was my 2<sup>nd</sup> time visiting the Grand Canyon, but my 1<sup>st</sup> time to lear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evolution and creationism. I had learned things I had never knew before and had also been able to view the Grand Canyon and other landmarks with different views. After receiving all the facts laid upon me, I had come to the thought of how the idea of evolution didn't fit at all with the way in which how the world was made.

Being myself, I hate heights . . . . a lot, and going to the Grand Canyon had only brought back bad memories. But being with the youth group made me feel more comfortable towards this trip. Although there had been different flights where I had to arrive earlier than the youth group and then leave later than the youth group, it was great to be with them overall. The repeated screams of “safety” and “doorknob” only added to the fun in the trip. Also, being split into groups was fun too. Being the one of two incoming sophomores was fun since that would mean getting to know the other grades better. Towards the end of the trip I had started to wish I was more into the trip faster so that time would not have been

wasted, but the past is the past, and it was a great past.

This trip had a huge impact on my spiritual growth by strengthening my growing faith. The way the facts were shown, how theories that great scientists tried to prove were false, and the amount of experiments done had completely moved me to see that evolution was a false theory and could not be believed at all. Creationism is the truth because it explains every corner of the earth. From the Grand Canyon and its layers to the creation of new species that could only be derived from the foundation of Creationism. One example that is still clear in my mind is the woodpecker whose tongue goes through the back of its head, through its nose and out its mouth. This woodpecker shows no ancestry or relationship from previous birds which had proved that creationism was true. With creationism, unique creatures like these woodpeckers could be created.

Overall, this trip was great. I would recommend this trip to everyone. This has been a trip that will be remembered throughout my spiritual life. I am looking forward to going on this trip in the years to come.



## 커뮤니티 프로그램 실버클럽 학기를 마치며..



실버클럽 노인들이 수료식을 가진 후 함께 하고 있다. 셋째줄 가운데는 김종훈 담임목사  
<사진제공=뉴욕예일장로교회>

# “신앙심 키우며 삶의 활력소 찾았어요”

## 뉴욕예일장로교회 실버클럽 수료식... 3월 봄학기 수강생 모집

롱아일랜드 힉스빌에 위치한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목사 김종훈) 실버클럽 노인들이 가을학기를 종강하고 8일 수료식을 가졌다.

실버클럽은 롱아일랜드와 플러싱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1년에 봄과 가을학기로 나뉘어 점심대접과 함께 예배, 영어, 반별 모임, 체조, 노래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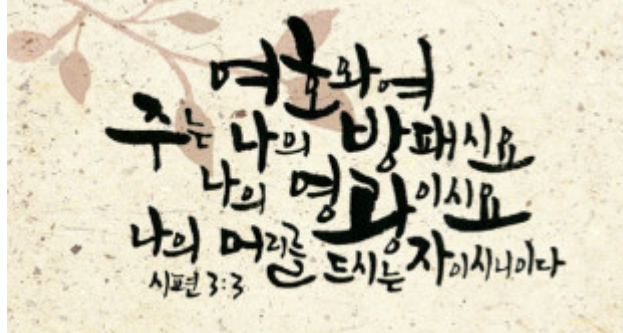
기.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취미생활과 함께 신앙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 학기에 2회 정도는 의료상담을 해주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네일, 헤어 봉사를 한차례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90여명의 노인들이 수강했다. 실버클럽 담당 디렉터 강세훈 부목사는 “실버클럽은 매 학기 13주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까지 진행된다”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수강할 수 있고 수강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아침 교회 반과 승용차를 플러싱부터 롱아일랜드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측은 내년 3월 실버클럽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516-938-0383

기사제보 (718)482-1122



편집후기

예수마을 14호를 독손에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 위원장님이신 오현섭장로님과

편집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박성우 집사님의 수고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정에 힘써 주신 윤승진목사님과 조유허사모님,

예수마을이라는 한권의 책이 발간되기 위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애써주시는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라집사

예수마을 통권 14호

발행인 김종훈 담임목사

발행일 2012년 5월

발행처 뉴욕예일장로교회 출판부

위원장 오협섭 장로

부 장 박성우 집사

총 무 강호정 집사

사 진 정재도 집사

홍재역 집사

신동인 집사

유성민 집사

편 집 임미라 집사





## 방송설교 안내

기독교 방송(KCBN) 본방 목요일 오전 9시(라디오)  
 재방 목요일 오후 9시  
 TV(TKC)에일의 시간 본방 주 일 오전 9:00~9:30

DIRECT TV(Ch.2087) 본방 주 일 오후 7:30~8:00  
 재방 월요일 오전 8:30~9:00

인터넷방송 <http://ny.cts.tv>

## 조유경 사모 신앙에세이

DIRECT TV(Ch.2087) 본방 화요일 오후 7:55~8:00  
 재방 수요일 오전 8:55~9:00



담임목사 김 종 훈  
 Rev. Jong Hoon Kim, Pastor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교회(516)938-0383/ Fax:(516)938-3824,

## 예배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 영어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30
- 월삭기도회 오후 9:00 (매월 첫째 금요일)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 제자훈련 화,목요일 오후 8:30
- 청년부 금요일 오후 8:30
- AWANA 주일 오후 2:00~4:00
- 주일학교 영아부 (3세미만) 오전 11:30
  - 유치부 (3~5세) 오전 11:30
  - 유년부 (1~5학년)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토요일 오후 2:30
- 실버클럽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 MOMMY&ME 금요일 오전 10:00~11:30
-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 뉴욕크리스찬아카데미 목요일 오후 6:30~8:00



-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43,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롱아일랜드 East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43, 첫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